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중학교 사회과 통합형 수업 모형에 관한 연구
- <사회1>교과서 고대 이집트 문명을 사례로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지리교육전공

송 미 화

2007年 8月

중학교 사회과 통합형 수업 모형에 관한 연구
- <사회1>교과서 고대 이집트 문명을 사례로 -

지도교수 손 명 철

송 미 화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8월

송미화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 | | |
|-------|-------|---|
| 심사위원장 | _____ | Ⓜ |
| 위 원 | _____ | Ⓜ |
| 위 원 | _____ | Ⓜ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년 8월

<국문초록>

중학교 사회과 통합형 수업 모형에 관한 연구
-〈사회 1〉교과서 고대 이집트 문명을 사례로-*
송미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지리교육전공
지도교수 손명철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변천을 살펴볼 때 1980년대 이후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이 종래의 분과형에서 통합형으로 개편,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통합을 지향하고 있으나 지리, 역사, 일반사회 영역은 아무런 유기적 연계성을 가지지 못한 채 대단원이나 중단원별로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다. 구체적인 학습 내용 구성에 있어서는 통합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통합이 미흡한 실정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불완전한 교과서를 가지고 불완전한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사회과의 학습 효율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 인식 아래 본 연구는 현행 제7차 교육과정과 사회 교과서를 대상으로 통합의 실태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집트 문명을 사례로 통합형 수업 모형을 개발하여 이를 설문 조사를 통한 피어 디브리핑(peer debriefing : 동료 연구자에 의한 조언과 지적)방법에 의해 구체적인 교수·학습 수준에서 통합의 가능성과 학습 효과를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연구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첫째, 연구 방법으로는 선행된 연구의 문헌과 중학교 10종의 1학년 사회교과서들을 비교, 분석 하면서 살펴보았다. 둘째, 통합교육과정의 이론적 배경인 통합교육과정의 개념, 필요성, 유형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리고 사회과 통합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의 통합적 접근은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았고 교육과정과 교과서 상에 나타난 통합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셋째, 현행 교육과정에서 형식적인 통합을 탈피하여 교수·학습 수준에서 통합이 가능한 내용을 재구성하여 이집트 문명을 사례로 통합형 수업 모형을 설계함으로써

* 본 논문은 2007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임.

통합의 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넷째, 통합형 수업 모형을 동료 교사들의 설문 조사를 통하여 통합의 가능성과 학습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게 되었다.

첫째, 교육과정 차원의 통합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현재로서는 교수·학습 수준에서 통합 밖에 없다. 교수·학습 수준에서의 통합은 가능성과 효율성을 아울러 갖고 있다.

둘째, 통합적 교육과정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과서를 재구성할 수 있는 교사의 능력이다. 통합적 교수·학습 모형에서는 각각 분과 전공을 갖고 있는 교사 혼자 지식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작업은 대단히 고난도의 작업이다. 지리, 역사, 일반사회처럼 전공이 다른 교사들의 분업적 원리에 의한 상호 연대가 중요하다. 즉, 교과 모임이나 교사 협의회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협동 작업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이집트 문명에 한정하여 통합형 수업 모형을 설계하였다. 이집트 문명 뿐만 아니라 통합이 가능한 단원인 경우는 통합형 수업 모형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는 교수·학습 수준에서 문답법 위주로 통합을 시도하면서 그림 자료를 사용하였다. 문답법뿐만 아니라 역할 놀이, 협동 학습 등 다양한 수업 방법과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수업 자료를 활용할 필요도 있다.

끝으로 제언을 한다면, 현재의 형식적인 통합을 탈피하여 통합이 가능하고 바람직한 단원은 내용면에서 확실하게 통합하고 나머지는 분리하여 분과형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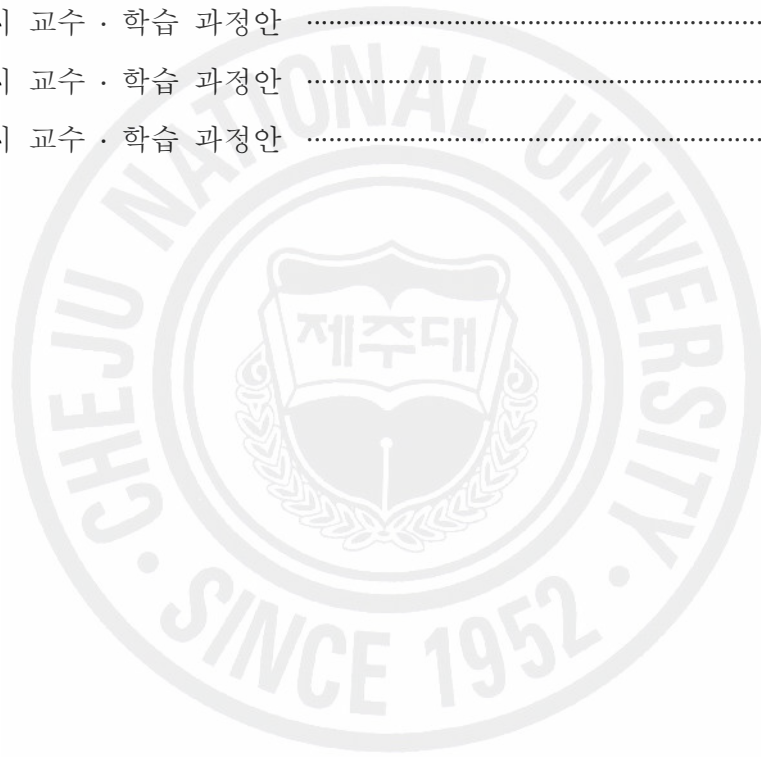
목 차

| | |
|--------------------------------------|----|
| I. 서 론 | 1 |
| 1. 연구배경과 목적 | 1 |
| 2. 연구 방법 및 절차 | 3 |
| 3. 연구 동향 | 4 |
| II. 현행 사회과 교과서의 통합적 접근 | 7 |
| 1. 사회과 통합의 필요성과 유형 | 7 |
| 2. 중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통합에 관한 인식의 전환 | 16 |
| 3.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의 통합적 접근 | 19 |
| 4. 제7차 중학교 사회과 통합교육과정의 실태와 문제점 | 22 |
| III. 사회과 통합형 수업 모형의 개발과 적용 | 27 |
| 1. 통합형 수업 모형 개발의 기본 방향 및 설계 | 27 |
| 2. 통합형 수업 모형의 실제 | 29 |
| 3. 통합형 수업 모형의 현장 적용 | 66 |
| 4. 통합형 수업 모형의 평가 | 66 |
| IV. 결론 및 제언 | 68 |
| 참고 문헌 | 70 |
| Abstract | 74 |

| | |
|-------------------------------------|-----------|
| 부 록 | 76 |
| 부록 1. 이집트의 고지도 | 77 |
| 부록 2. 농경이 가능한 지역 | 78 |
| 부록 3. 범람 주기와 농사 | 79 |
| 부록 4. 이집트인의 가옥 구조 | 80 |
| 부록 5. 이집트의 신분 피라미드 | 81 |
| 부록 6. 피라미드 | 81 |
| 부록 7. 스피нк스 | 81 |
| 부록 8. 로제타 석 | 82 |
| 부록 9. 이집트 문자 | 83 |
| 부록 10. 마분지로 피라미드 만들기 | 84 |
| 부록 11.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 | 85 |
| 부록 12. 사자의 서 | 86 |
| 부록 13. 이집트의 신 | 86 |
| 부록 14. 미라 만드는 과정에 관한 카드 놀이 소개 | 87 |
| 부록 15. 통합형 수업 모형에 관한 설문지 | 88 |

표 목 차

| | |
|---------------------------------|----|
| 표 1. 교육과정 유형별 교육내용 조직유형 | 12 |
| 표 2. 통합교육과정의 유형 | 12 |
| 표 3. 통합 유형의 특징 | 14 |
| 표 4. 제7차 사회과 교육 내용 체계 | 24 |
| 표 5. 이집트 단원의 통합형 수업 모형 설계 | 28 |
| 표 6. 1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 30 |
| 표 7. 2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 41 |
| 표 8. 3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 55 |



I. 서 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우리나라 중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은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고질적인 미해결의 난제를 하나 가지고 있다. 교육과정의 통합이 바로 그것이다. 사회과 통합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는 1945년 해방과 함께 사회과가 도입된 직후부터 시작되었으며, 특히 제2차 교육과정에서 지리, 역사, 공민(일반사회)을 통합한 사회과라는 새로운 교과가 나타나게 되면서 사회과 통합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는 활기차게 진행되었다. 중학교의 경우 사회과 교육과정에 본격적인 통합적 접근을 시도한 것은 1981년 제4차 교육과정 개편 때부터이다. 이전까지 학년별로 지리, 역사(세계사), 공민(일반사회)의 3개 영역을 1개씩 독립적으로 편성하던 ‘분과형’에서 각 학년별 ‘분과형’을 매 학년에 2-3개 영역을 혼합하는 ‘분산적 통합형’으로 바뀌었다. 이는 수업 시간에 오직 한 교과 혹은 한 영역만의 지식이나 경험을 가르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여러 분야의 내용을 서로 의미있게 관련지어 가르치려는, 이른바 통합적 수업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¹⁾ 이러한 사회과의 통합적 접근은 일관된 기조로서 현재까지 계속 강조되고 있다.

그동안 진행되어 온 우리나라의 사회과 통합은 통합의 기본 모형으로 제시되는 다학문적 통합, 학제적 통합, 초학과적 통합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고, 단지 각 학문적 영역에서 몇 가지 단원을 혼합하여 사회과라는 이름의 교과서를 만든 것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공통의 주제나 이슈, 문제 등을 중심으로 하여 관련되는 학문적 영역을 연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²⁾

더욱이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개정된 현재의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목표, 내용에 이르기까지 통합 사회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으며, 학생의 사고력과 올바른 사회인식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문제 중심의 접근, 통합적

1) 손명철, 1999,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통합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하나의 대안,” 『지리·환경교육』, 제 7권 (1), 51.

2) 차경수, 1999, 21세기 사회과 교육과정과 지도법, 교육과학사, 60.

교수·방법 등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사회과에서의 통합교육과정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통합 사회과 취지를 반영한 형식상의 통합일 뿐, 구체적인 내용 구성이나 사회과의 통합적 지도를 위한 제반 여건 등이 미흡하여 학교 현장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중학교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초등학교는 이미 과목의 경계가 허물어진 상태의 통합교육과정(슬기로운 생활 : 사회 + 자연)이 시행되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심화·선택 과목을 중심으로 학문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분과적 교육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중학교에서는 완전한 통합 구성도 아니고 계통 학습을 위한 내용 구성도 아닌 중간 형태의 내용 구성으로³⁾, 외형적으로 통합을 지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학습 내용 구성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통합이 미흡한 실정이다.

사회과 교육과정의 통합이 시도된 지 20여년이 지나고 있으나, 학생들이 직접 접하게 되는 사회 교과서를 기준으로 볼 때 통합의 방식과 수준은 여전히 기형적이고 불완전한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통합교육과정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 교과서’가 통합적으로 구성되지 못하고, 종래의 지리, 역사, 일반사회라는 3분법적 원칙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지리, 역사, 일반사회 영역이 아무런 유기적 연계성을 가지지 못한 채 대단원이나 중단원별로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불완전한 형식상의 통합은 학교 현장의 사회과 교사와 학생들에게 많은 현실적인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⁴⁾

학교 현장에서 통합 지도를 위한 지침과 교수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전공이 각각 다른 사회과 동료 교사들 간의 교과에 관한 협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때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관한 결정은 교사 자신이 거의 독자적으로 판단해야만 하는데 이러한 점은 중학교 교사들이 통합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이다.⁵⁾

또한 학생들이 각 교과간의 연계성을 찾는데 혼란을 가중시키며, 사회 현상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인 인식과 통합적 사고력을 기르는데도 적합하지 않으며,

3) 조현아, 2002, 중학교 사회과 통합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

4) 손명철, 전게서.

5) 변정실, 2002. 제 7차 교육과정 중등사회과 통합의 실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

현장 교사들에게도 교과서가 통합적 교수·학습을 위한 지침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⁶⁾

이와 같은 문제 인식 아래 본 연구는 현행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이 본래 의도했던 통합적 접근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형식적 통합으로 인해 오히려 많은 문제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제7차 교육과정과 사회 교과서를 대상으로 통합의 실태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집트 문명을 사례로 통합형 수업 모형을 개발하여 이를 설문조사를 통한 피어 디브리핑(peer debriefing : 동료 연구자에 의한 조언과 지적)방법에 의해 구체적인 교수·학습 수준에서 통합의 가능성과 학습 효과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앞서 지적한 연구 목적에 부합되는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첫째, 선행된 연구의 문헌, 관계 전문가들이 저술한 각종 서적과 논문들을 통해 통합교육과정의 개념과 유형, 필요성 등을 이론적으로 검토한다.

둘째, 현행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내용 구성상’의 특징을 통합적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해서 제7차 교육과정 해설서(1999)에서 고시하고 있는 ‘사회과 내용 조직 원리’와 ‘중학교 사회과의 내용 체계’를 검토한다.

셋째, 현행 사회과 통합의 실재를 파악하기 위해 사회1 교과서⁷⁾를 비교, 분석하고 통합에 적합한 수업 모형을 고찰하고자 한다. 비교, 분석한 단원은 이집트 단원에 한정한다.

넷째, 개발된 통합형 수업 모형을 적용한 교수·학습의 효과는 동료 교사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10명의 중학교 사회과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피어

6) 조현아, 전게서.

7) 비교, 분석에 사용된 중학교 「사회1」 10종 교과서 : 디딤돌, 금성, 지학사, 교학사 2권, 동화사, 고려출판사, 두산, 중앙교육진흥연구소, 성지 문화사.

디브리핑 방법을 사용하여 그 결과를 통합형 수업 모형을 모색하는 하나의 자료로 삼고자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내용이 구성된다.

II장에서는 우선 통합교육과정의 개념, 필요성, 유형에 대해 고찰한다. 그리고 사회과 통합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의 통합적 접근은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고 교육과정과 교과서 상에 나타난 통합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본다.

III장에서는 현행 교육과정에서 형식적인 통합을 탈피하여 교수·학습 수준에서 통합이 가능한 내용을 재구성하여 이집트 문명을 사례로 통합형 수업 모형을 설계함으로써 통합의 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통합형 수업 모형을 설문조사를 통한 피어 디브리핑 방법에 의해 통합의 가능성과 학습 효과를 분석한다.

IV장에서는 현행 교육과정에서 현실적으로 교수·학습 수준에서 통합이 가능한 부분은 통합하고 나머지는 분리하여 분과형으로 구성하는 차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동향

교육과정 통합에 관한 주제는 1916년 사회과의 등장을 위시하여 1930년대의 진보주의자들이 경험의 누적적 재구성인 학습자의 성장은 통합을 의미한다고 지적한 이래로 반복되어 논의되어 왔다. 그런데 특히 지난 1980년대의 10여년 동안은 지식의 급증, 많은 이슈의 증가, 분절된 교수 계획, 교육과정과 관련한 관심 및 교과간의 관련성과 연계 부족 등을 이유로 그 논의가 활발하였다 (Jacobs, 1989: 1-10)

1983년 한국교육개발원이 통합교육과정 연구 과제의 일환으로 수행된 연구 결과를 발간한 ‘통합교육과정의 이론과 실천’에서 통합교육과정의 개념, 구성 방법, 학습 지도, 평가, 학교 운영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이 연구는 통합교육과정의

가능성과 한계를 이해하고 통합교육과정에 대한 다양한 개념적 이해를 넓히고 그 발전적 실천 가능성을 탐구하는데 보탬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류재명(1997)은 ‘사회과 통합 운영과 지리과 교육과정의 계열적 조직 방안’에서 사회과 통합 운영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적 목적이 무엇이며, 그러한 목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그동안 논의되어 오던 통합 사회과 운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통합이 학생들로 하여금 관련 교과에서 학습한 내용을 서로 연계시키면서 종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교육방법론을 발전시키는 데 주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손명철(1999)은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통합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하나의 대안’에서 사회과 교육과정의 통합이 시도된지 20여년이 지나고 있으나, 통합의 방식과 수준은 기형적이고 불완전한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중학교 사회과 통합교육과정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면서 현실적인 차선책으로 통합이 가능하고 바람직한 부분은 내용면에서 확실하게 통합하고, 나머지는 분리하여 분과형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조현아(2002)는 ‘중학교 사회과 통합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사회과 통합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 구성, 현직 사회과 교사들의 의견, 기타 운영상의 제반 여건 등의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학교 현장에서 사회과 통합교육과정이 실질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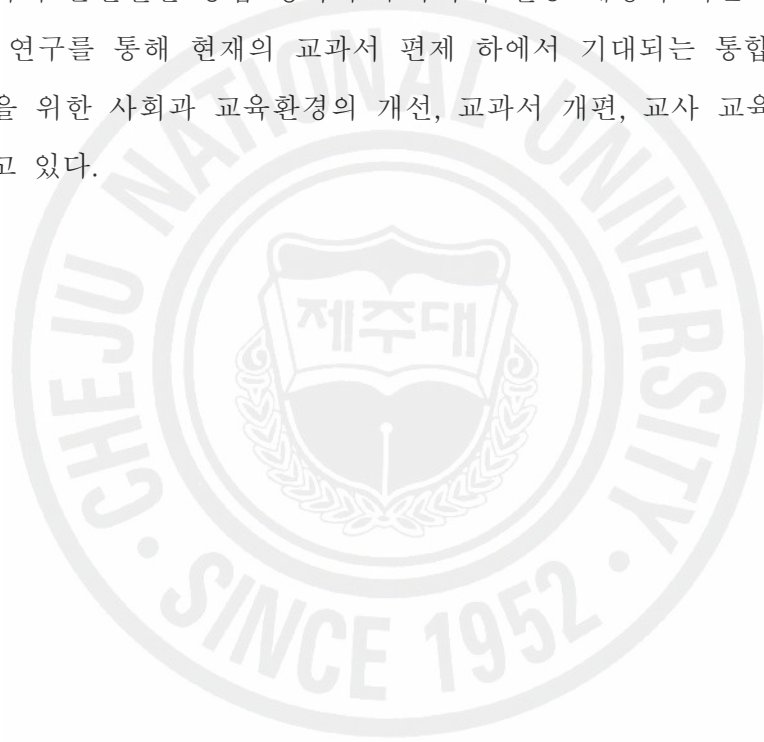
차경수(1998)는 ‘사회과 통합교육과정의 문제점과 해결 대안’에서 통합을 실시할 때는 모든 교과를 통합하려고 하지 말고, 한 학기 또는 한 주일이나 한 달 등 다양한 형태의 통합을 단원이나 과목의 성격에 따라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또한 7학년은 지리 중심의 통합 과정, 8학년은 역사 중심의 통합 과정, 9학년은 사회 중심의 통합 과정, 10학년은 이슈 중심의 통합 과정을 제안하고 있다.

변정실(2002)은 ‘제7차 교육과정 중등 사회과 통합의 실제’에서 통합 사회과 문체가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고 변천되어 왔는지를 제7차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오늘날 현장 사회과 교사들은 사회과 통합과

지리교육의 실태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통합사회과와 지리교육의 문제점을 다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탐구하고 있다.

이형철(2005)은 ‘제7차 교육과정 중등 사회과 교과서 분석을 통한 통합의 실제’에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7학년에서 10학년까지의 사회 교과서를 분석하여 구성 체계와 내용 체계, 학습 자료를 중심으로 통합 단원의 비중과 통합성의 정도를 파악해서 교사들이 교과서를 재구성하여 교수·학습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혁규(1996)는 ‘중학교 사회과 교실 수업에 대한 일상생활 기술적 사례 연구’에서 사회과의 불완전한 통합 형식에 주목하여 전공 배경이 다른 교사들의 교실 수업 사례 연구를 통해 현재의 교과서 편제 하에서 기대되는 통합 효과와 바람직한 통합을 위한 사회과 교육환경의 개선, 교과서 개편, 교사 교육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II. 현행 사회과 교과서의 통합적 접근

1. 사회과 통합의 필요성과 유형

사회과 통합교육과정의 이론적 기초 부분으로 통합, 통합교육과정, 사회과 통합교육과정에 대한 개념을 먼저 살펴보고, 사회과 통합교육과정의 필요성과 통합의 유형을 차례대로 고찰하고자 한다.

1) 통합교육과정의 개념

통합교육과정에 있어 통합(integration)이란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이질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일정한 원리에 의해서 질서 있게 결합하여 하나의 통일체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이질적인 부분이 이질적으로 남아 있으면 그것은 통합으로 볼 수 없으며, 통합이 되면 새로운 성격의 단위를 형성하게 된다. 통합은 매우 약한 상태의 통합으로부터 매우 정도가 강한 통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고, 통합의 원리나 준거도 상황에 따라서 매우 다르게 존재할 수 있다.⁸⁾

통합의 일반적 개념을 교육에 적용하면, 통합 교육을 “학습자의 학습 요소들인 지식, 기능, 가치, 태도 등을 일정한 원리에 따라 재구성하여 질서있게 결합된 하나의 통일된 체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교육적 활동” (차조일, 1998: 68)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때 분리된 부분이 통합되기 이전과 성질이 다른 것처럼, 통일된 체계에서의 지식, 기능, 가치, 태도 등은 분리되었을 때와는 다르게 서로 유리되지 않고 상호 작용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종합적인 시각에서 통일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통합교육과정은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그리고 내용 영역에서 각각 다른 학습 경험들이 상호 관련지어지고 의미 있게 모아져서 하나의 전체로서의 학습을 완성시키고 나아가서 인

8) 차경수, 1998, “사회과 통합교육과정의 문제점과 해결대안,” 『사회과학교육』, 제2집, 73.

격 성숙에까지 이르게 하는 과정 또는 결과”로 정의할 수 있다.⁹⁾ 즉 통합교육 과정은 지식의 변화에 대처하고, 다양한 영역의 지식을 상호 관련시켜 지식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학생들의 학습을 용이하게 하여 인격 발달을 촉진하고, 나아가 학습 경험을 사회 문제 해결에 결부시켜 그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한다.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통합이라는 용어는 시대와 학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어 왔으며, 그 의미하는 바가 매우 폭넓어서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여기서는 사회과의 통합이 실제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는 것을 통합의 의미로 사용한다. 통합은 사회과의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정치학, 경제학, 역사학, 지리학 등 어느 하나의 학문적 영역의 내용을 기초로 하지 않고 2개 이상의 학문적인 내용을 기초로 하여 사회과의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의미하게 된다.

사회과의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내용에는 지식, 기능, 탐구방법, 태도, 가치 등 어느 것이나 있을 수 있고, 구성의 원리로는 개념, 문제, 주제 등이 준거가 될 수 있다(Parker & Jalorimek, 1977: 356; Jacobs, 1989: 8). 이들을 기초로 하여 사회과 통합교육과정의 개념을 정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과의 통합은 사회과에서 중요시되는 중심적인 개념, 이슈, 문제, 사건, 주제 등을 보다 더 명확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학문적인 영역에서 지식과 탐구방법 등의 내용을 가져와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 현장에서의 통합의 역사는 상당히 길다. 1916년에 역사와 지리 중심의 사회과가 탄생한 이후 사회문제를 중심으로 사회과를 통합하려는 주장이 많이 나타났다. 1930년대에 미국의 사회과 교육학회(NCSS)는 이 문제를 활발하게 논의했고, Dewey가 시카고대학의 실험학교에서 실시한 유명한 「8년 연구」(Eight Year Study)는 훌륭한 하나의 통합교육과정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 이후로도 거의 해마다 수많은 통합 사회과의 교육과정이 실험되거나 실시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해방 후 1945년에 지리, 역사, 공민(일반사회) 등을 통합하는 사회과가 초등학교에서 실시된 이후, 초, 중, 고등학교에서 수많은 형태의 통합 사회과가 실험 또는 실시되어 오고 있다.

9) 이영덕, 1983, 통합교육과정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15.

그러나 이러한 연구와 시도가 활발하게 있었다고 해서 통합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중등학교에서 어떤 영역의 몇 과목을 기초로 해서 통합을 할 것인가의 문제는 끊임없는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통합의 형태와 학문 영역, 통합 과목의 교수 등에 대해서 논쟁이 활발한 실정이다.

2) 사회과 통합의 필요성

통합교육과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1982년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교육혁신 및 개발 프로그램(APEID, 1982)은 학생들의 필요와 생활경험을 중심으로 학습을 보다 의미있게 실천하려는 교육목적과 실천의 일치, 인간은 낱알의 요소들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자연적 지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교육도 당연히 통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계·운영되어야 한다는 교육 심리적 측면, 교과 통합으로 인한 교과서 수의 감소는 자원 절약과 교사 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행정적인 이유 등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김재복(1990, 39)은 각 개인에게 만족스러운 경험의 제공을 주장하는 인간주의 교육과정의 흐름에서, 개인의 자아 실현을 전제로 통합된 경험의 제공이 필요하며, 학교 교육의 기본이 되는 교육과정은 통합적으로 구성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차경수(1998, 75)는 첫째, 훌륭한 시민으로서 필요한 사회생활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교육하고 바람직한 가치관을 형성하려는 시민 교육적 성격에서 통합이 요청되며, 둘째, 교과목을 축소해야 한다는 한국 교육계의 교육 개혁적인 요청, 셋째, 시민 생활에 필요한 사고력과 태도, 가치관 등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통합 교육과정에 의한 사회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권오정(1994, 35)은 사회과가 목표로 하는 올바른 의사 결정 능력과 적극적인 사회 참여 태도를 갖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육성하기 위해서, 둘째, 사회과가 지향하는 사회적 문제 해결 능력의 육성과 통합적 시각을 기르기 위해서, 셋째, 사회과 내용의 모체가 되는 사회 과학의 성과들은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 것들이므로 통합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효율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경순(2000, 13)은 학생들의 인식 대상인 사회 현상인 시공간적 계열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일체의 측면들이 통합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사회 인식 교육 측면에서 사회과는 통합되어야 하며, 둘째, 시민 교육의 측면에서 사회과에서 기르고자 하는 시민은 특정 학문이나 과학의 전문가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력과 합리적인 의사결정력 등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자질을 기르기 위해서 통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인그람의 견해를 중심으로 통합교육과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본다.¹⁰⁾

첫째, 인지적 측면에서 통합교육과정은 ① 교과보다는 경험중심으로 통합함으로써 지식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준다. ② 지식의 변화와 분과화 경향에 맞서 구분된 지식 영역들을 보다 큰 이해의 맥락으로 결합함으로써, 다양한 지식 영역들간의 상호 관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③ 교과가 자체의 목적 성취로만 그치지 않고, 교육과정 전체의 목적 성취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학문의 목적에 대한 인식을 달리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교과간의 중복된 내용을 피하고, 가장 핵심적인 기본지식의 추출이 가능하여 학습 부담을 줄여 교수·학습의 효과를 높여준다. 결국 통합교육과정은 인지적 측면에서 지식의 분화에 따른 분과별 교육과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단편적이고 중복되는 지식의 습득을 지양하고,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지식의 습득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① 아동의 심리적 발달 수준에 기초하여 조직하기 때문에 학습하기 쉬운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개인의 성장과 자아 실현 등 아동의 인격 발달을 촉진시킨다. 분과 교육이 인격 발달 보다는 전문가 양성 측면이 강하다면, 통합교육과정은 균형잡힌 인격 발달을 가능하게 해준다. APEID에서도 아동들은 여러 부분을 하나의 전체로 통합하는 자연적 지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도 통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적합하지만, 중등 학교에서의 적합성 여부는 앞으로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결국 심리적 측면에서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구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통합교육과정의 의의가 있다.

셋째, 사회적 측면에서는, ① 교과별 수업이나 통합 수업 모두 경쟁과 협동에

10) 조성욱, 2004, “중등 사회과 교육과정의 분리적 통합,”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제12권(2), 291-292.

의한 학습이 이루어지지만, 특히 통합 수업이 협동을 통한 교수·학습에 유리하다. ② 사회 문제는 어느 한 교과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고, 지식의 통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간학문적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통합교육과정이 필요하다. ③ 통합교육과정은 실생활과 관련된 경험중심으로 조직되기 때문에 학교와 사회를 더욱 밀접하게 연결시킨다. 즉 일상 생활에 필요한 상식적인 지식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통합교육과정은 인지적 측면에서 다양한 지식 영역들 간의 상호 관련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심리적인 측면에서 개인의 성장과 자아 실현을 촉진시키고, 사회적 측면에서 경쟁과 협동 학습이 가능하고, 학교와 사회를 밀접하게 연결시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개념과 기능의 계열적인 습득이 어렵고, 중복되는 경향이 있으며, 기존의 학교체계의 전반적 재조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실 적용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김재복, 2000, 15).

3) 통합교육과정의 유형

통합의 유형이나 형태는 수없이 다양하다. 학자나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또 시기적인 구분에 따라서 달라진다. 김재복은 교육과정 이론을 바탕으로 내용 조직 유형을 분류하고(표1), 은지용은 내용 통합 정도에 따라 교과중심(분과·상관·융합), 학문중심(학문기초·다학문·간학문·탈학문), 경험중심(중핵형·활동형) 접근으로, 내용 조직 초점에 따라 개념 또는 주제 중심, 이슈 또는 문제 중심, 스트랜드 중심의 통합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통합의 접근 방법, 통합의 형태, 통합의 학습 요소, 학문의 연결 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이 제시되고 있다(표2).

가장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방법은 독립적인 학문을 연결시키는 방법인 학문적 형태(학문연결 방법)와 학습 내용을 어떤 기준에 의해 결합하는 방법인 교육적인 형태(학습 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는 가장 일반적인 분류 형태인 학문적 형태와 교육적인 형태로 구분하여 살펴보겠다.

표 1. 교육과정 유형별 교육내용 조직 유형

| 교육과정 유형 | 교과 중심 | 경험 중심 | 학문중심 | 인간중심 |
|----------|---|---|---|---|
| 내용 조직 유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과형 • 상관형 • 광역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형 • 중핵형 • 현성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선형 • 간학문형 • 다학문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형 • 개방형 • 관련형 |

출처 : 김재복, 2000, 통합교육과정, 67.

표 2. 통합교육과정의 유형

| 분류기준 | 통합 유형 |
|--------|--|
| 접근방법 | ① 논리적·구조적 통합 ② 심리적·기능적 통합 |
| 통합 형태 | ① 합산적 통합 ② 기여적 통합 ③ 융합적 통합 ④ 종합적 통합 |
| 학습요소 | ① 주제(개념)중심 통합 ② 기초기능중심 통합 ③ 탐구중심 통합 ④ 경험중심 통합 ⑤ 활동중심 통합 ⑥ 필요와 흥미중심 통합 ⑦ 문제(이슈)중심 통합 ⑧ 스트랜드 중심 통합 |
| 학문연결방법 | ① 다학문적 통합 ② 간학문적(학제적) 통합 ③ 탈학문적(초학과적) 통합 |

출처 : 교육과정 개정 연구위원회, 1996, 통합교과의 교육과정·교과서 구조개선 연구, 26.

(1) 학문적 형태

학문적 형태라고 하는 것은 사회과의 학습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학, 경제학, 역사학, 지리학 등의 학문 중 몇 개나 결합되는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다. 학문(discipline)은 그 자신의 개념과 일반화, 법칙과 탐구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발전시킨 지식의 체계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주로 정치, 경제, 지리 등의 사회 과학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되었으나 최근에는 문학, 철학 등의 인문학도 주요한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가장 적게는 2개 학문이 서로 결합할 수도 있으나, 어떤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학문을 기초로 하여 전혀 새로운 형태의 교육과정이 구성될 수도 있다. 결합하였을 때 원래의 학문적 성격이 그대로 살아 있는 경우도 있고, 결합한 후에는 전혀 새로운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분류되는 유형을 중심으로 이들의 특징과 그 장단점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Jacobs, 1993 :8, 53-65; Drake,

1993: 33-51)

① 다학문적 접근

다학문적 접근(multidisciplinary approach)은 서로 다른 여러 가지 학문 사이의 결합의 정도가 가장 낮은 통합 형태로서, 각 분과 학문이 자신의 고유한 관점과 개념들을 독립적으로 유지하면서 하나의 주제 혹은 현상에 다각도로 접근해 가는 방식이다. 자동차에 관해서 환경오염, 도로발달, 보험, 연료개발, 가족형태, 쇼핑, 디자인 등 여러 각도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기초로 살펴보는 것과 같다. 사회과학과 인문학이 다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적어도 5-6개의 학문이 관련되고, 대개 10여개의 학문이 쉽게 관련된다. 다양한 학문을 관련시키는 장점도 있지만 각 학문의 독립적인 위치가 그대로 살아 있다고 하는 점에서 진정한 통합이라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어떤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각각의 학문적인 지식을 학습하는 결과가 되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② 학제적 접근

학제적 접근(interdisciplinary approach)은 2개 이상의 학문을 기초로 하여 각 분과 학문의 경계선을 넘어 학문간 공통의 주제나 개념, 탐구 절차 등을 중심으로 통합을 지향해가는 것이다. 사회과학에서 현실적으로 많이 쓰일 수 있는 유형으로 학문들 사이의 경계선이 허물어지며 둘 이상의 학문에서 공통적인 개념, 주제, 방법, 절차 등을 중심으로 각 학문의 내용을 추출하여 재구성하는 것이다(민윤, 1992:20). 여기서 둘 이상의 학문은 통합의 대상, 즉 내용이 되는 것이며, 개념·절차·방법 등은 구체적인 통합의 방법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민윤, 1992:21). 각각의 학문적 독립성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들에게 공통적인 개념이나 이슈 등을 발견하여 학습내용을 조직하려는 것은 확실히 발전된 모습이며 학문적인 독립성도 연계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많이 흐려져 통합이 강조된다.

③ 초학과적 접근

초학과적 접근(transdisciplinary approach)은 여러 가지 학문적인 배경을 기초로 하지만, 이들 학문의 독립적인 영역을 초월하여 사회과학에서 관심 있는 주제, 문제, 기능 등을 중심으로 학습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이다. 이 때의 교육과정 구성은 개별적인 학문의 지식 체계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내용이 된다는 것이 앞

에서 서술한 다학문적 접근이나 학제적 접근과 다른 점이다. 말하자면 결합의 강도가 가장 높아서 다양한 학문의 벽은 허물어져서 완전한 형태의 통합교육과정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초학과적 통합방식은 학습자의 경험을 강조하기 때문에 학문중심 교육과정에서 보다는 경험중심 교육과정에 더욱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¹⁾

학생들이 학습하는 것도 고급사고력, 탐구방법, 가치관 등에 주요한 역점이 주어지고, 각각의 학문적 지식의 체계는 아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에서는 다른 학문의 지식을 이용하되, 중심적인 초점을 무엇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와 이러한 초점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는 것이 실제적인 과제가 된다. 이 방법의 장점은 완전 통합교육과정에 가장 가깝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교육과정 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통합교육과정의 단점인 혼란, 내용의 깊이 부족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표 3. 통합 유형의 특징

| 구분 | 다학문적 접근 | 학제적 접근 | 초학과적 접근 |
|-------|-----------|------------------|--------------------|
| 조직의 틀 | 각 학문은 독립적 | 각 학문은 서로 연결 | 각 학문은 하나로 융합 |
| 주요 내용 | 각 학문의 지식 | 각 학문에 공통적인 탐구 기능 | 실제 생활에서 요구되는 고급사고력 |
| 평가 | 지식 | 탐구 기능 | 실제 생활 문제의 해결력 |

출처 : 차경수, 1998, 사회과 통합교육과정의 문제점과 해결대안, 80.

④ 기타의 형태

이상과 같은 것 이외에 광역형, 상관형, 연합형, 융합형 등의 구분도 있다. 광역형(broad field)은 가장 초보적인 통합의 형태로서 어떤 문제를 다양한 학문적 견지에서 서술하는 방법이며, 상관형(correlation)은 학습문제에 관해서 서로 다른 학문적인 내용이 관련되어 있을 때 이들 관련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것이다. 상관형과 비슷한 것으로 최근에는 하나의 학문적 영역에 있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다른 학문적 영역에서 찾아 와서 삽입 또는 주입하는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구성

11) 은지용, 1999, 반성적 사고력 함양을 위한 사회과 통합교육과정 모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2.

하는 것이 연합형(infusion)이며, 위에서 서술한 초학파적 접근과 같이 고급사고력이나 기능을 초점으로 하여 여러 가지 학문적인 영역의 지식을 이용하나 그들을 초월하여 새로운 학습내용을 구성하는 것을 융합형이라고 한다.(Parker & Jarolimek, 1997: 353-385).

(2) 교육적 형태

통합교육과정의 교육적 형태(educational form)는 여러 가지 학문적 지식의 체계를 실제로 가르치기 위해서 개념이나 주제 등에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결합하느냐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개념 또는 주제를 중심으로 한 것, 또는 이슈 및 문제를 중심으로 한 것 등이 흔히 논의되지만, 최근에는 스트랜드 중심의 통합이 관심을 끌고 있다.

① 개념 또는 주제중심 통합

개념 또는 주제중심(concept-centered, theme-centered) 통합교육과정은 여러 가지 학문을 기초로 하여 통합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그 중심이 되는 초점으로서 개념 또는 주제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 때는 추출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학문에 공통적인 개념이나 주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족주의나 혁명이라는 개념이나 주제는 정치학과 역사학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으며, 근대화 역시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등 여러 학문적인 관점에서 다룰 수 있다.

개념은 어떤 상황을 나타내기 위한 언어적 표현이지만, 주제는 어떤 상황에 대한 일반화적인 서술을 보다 더 많이 포함하고 있다. 이런 방법은 개념이나 주제의 추상성으로 인하여 응용 범위가 넓고, 사고력 향상을 위하여 바람직하지만, 실제로 교육과정 구성이 어렵고, 문제나 이슈가 명확하지 않아 모호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은 단점이 있다. 또 개념이나 주제는 공통적인 것을 가지고 오지만, 그 내용 조직에서는 학문의 각각의 독립성을 완전히 허물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

② 이슈 또는 문제 중심의 통합

이슈 또는 문제중심(issue-centered, problem-centered)의 통합은 여러 가지 학문을 배경으로 하여 통합교육과정을 만들 때 그 초점으로서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이슈나 문제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슈는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으나 찬성과 반대가 서로 엇갈려 있는 상태이고, 문제는 이슈보다 부정적인 부분이

사회적으로 보다 더 분명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환경오염, 도시문제, 범죄 등은 사회문제로서의 성격이 명백하고, 성교육이나 과외수업 같은 것은 사회적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문제들은 여러 가지 학문적인 시각에서 모두 학습할 수 있다. 이슈나 문제 중심의 통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백한 장점이 있으나 범위가 한정되고 또 내용의 학습에서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등의 영역에 기울어질 우려가 있다. 그러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사회과에서 사회 문제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가장 적합한 통합과정의 형태이다. 각각의 학문의 벽을 완전히 넘지 못하는 약점을 면할 수가 없다.

③ 스트랜드 중심의 통합

스트랜드(strand)는 사회과 교육의 영역에 있는 개념, 주제, 문제, 이슈, 일반화, 법칙, 가치 등을 모두 종합하여 사회과에서 가르쳐야 하리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종합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이며 준거이다.

스트랜드 중심의 통합은 원래 사회과의 철학과 이념, 목표에서 여러 가지 학문의 지식을 이용하여 사회과의 교육과정으로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학문적인 벽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완벽한 통합의 장점이 있다. 말하자면 현재로서는 통합교육과정의 이상에 가장 가깝다. 그러나 학문적인 지식의 체계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여 지식의 깊이가 약하다는 우려가 있다.

2. 중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통합에 관한 인식의 전환

우리나라에서 사회과 교육의 통합 문제를 둘러싼 논의에서 심각한 문제점의 하나는 통합에 대한 극단적인 사고가 상당히 넓게 신념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적어도 현재의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같이, 중등학교에서도 지리, 역사, 일반사회의 벽을 허물고 완전 통합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사회과이며 의미있는 통합이라고 보는 신념이다. 이러한 신념이 얼마나 절대화되어 있는가 하는 증거의 하나는 6차 교육과정과 현행 7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된다. 실제 내용 구성 면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든, 우선 교과서 이름만이라도 지리, 세계사, 일반사회와 같은 명칭을 없애고 또 영역별 벽을 허물고 ‘사회’

라는 공통 명칭하에 통합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이와 같은 지리, 역사, 일반사회의 상대적 독립성조차도 부정하는 통합논의에 맞서 통합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알레르기 반응이나 거부 현상도 종종 목격된다. 그리고 사회과의 통합은 애당초 무리이며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시각에서 과감한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소리도 있다. 류승렬은 “현행의 사회과 체제가 계속된다면, 모든 관련 당사자들은 서로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아도 시간이 모자랄 처지에서 상호 불신과 반목 속에 부질없는 논쟁과 분란에서 계속 헤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다.” (류승렬, 2000: 9)라고 통합체제 자체가 상호 불신과 분란의 원인이 된다면서 현행 통합 사회과의 현상을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광복 이후 사회과가 성립되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틀은 유지되고 있다. 특히 제6차 및 제7차 교육과정에 와서는 교과목의 축소 경향과 맞물려 통합이 이전과 비교하여 보다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제6차 교육과정 이래 통합을 강조하는 가운데 근래에 와서 새롭게 발견한 중요한 사실의 하나는 지리, 역사, 일반사회의 벽을 허물고 명실상부하게 통합사회과를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사실이다.

박선미 박사는 사회과에서 통합의 어려움에 대하여 2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박선미, 2003: 32-34)

첫 번째는 일선 교사들이 통합 사회과 수업의 실행상의 어려움 때문에 통합의 필요성에 대하여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통합에 열성을 가지고 실천하고자 하는 교사들조차도 사회과 통합 수업을 계획하여 준비하고 실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답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회과 수업에 한차례의 연구수업 등으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였다”는 상징적인 의미만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학문에 기반하지 않은 교과로서의 사회과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통합 교육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설득력있게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기존의 학문중심의 교과구조가 학교교육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Bernstein에 의하면 학문 중심의 교과는 분류와 프레임이 견고하고 분명하며, 전통적으로 볼 때 대체로 분류와 프레임이 견고하고 분명할수록 교과의 위상은 높은 반면, 통합교과는 분류와 프레임이 취약

하고 학문적이라기 보다는 일상적이며, 전문적이라기 보다는 일반적이어서 학교에서 교과로서 차지하는 지위가 낮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과 통합은 역사학, 지리학, 경제학과 같이 분류와 프레임이 견고한 학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더욱 실행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사회과 교육계 내에서 근래 통합에 대한 논의는 매우 고무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하는 것은 통합이나 분과냐 하는 것을 절대화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받아들이며 모든 논의에 대해 열려있는 자세가 보여지기 때문이다.

류재명은 사회과 통합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한국의 ‘(통합)사회과’ 라는 과목은 한국의 사회·역사적 환경속에서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지고 변경되어온 하나의 ‘사고 체계’ 일 뿐이며, 그것이 어떤 고정 불변의 정답이거나 비판하고 깨뜨릴 수 없는 어떤 신성한 권위체가 아니라는 말이다” (류재명, 2000: 34)라고 기본적인 입장을 강조하여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과 교육의 통합에 대한 논의를 위해 다양한 통합의 수준과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류재명, 2000: 35 참조)

박성혁은 또한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학생들에게 지리, 역사, 기타 사회과학을 가르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각 영역이 독립되어 분과적으로 가르쳐지고 있으며 사회과로 통합되어 있는 경우는 미국과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를 제외하고는 드문 실정이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대부분의 고등학교 내에서는 초·중등학교와 달리 각 영역이 독립되어 가르쳐지고 있는 실정이다(박성혁, 2000: 54)라고 통합사회과에 대하여 매우 상대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영효도 통합 사회과에 대해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면서도 “사회과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는 중등학교의 전체적인 교육과정 편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과 내에서의 영역 다툼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영효, 2000: 7)라고 향후 사회과 교육과정 논의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류승렬도 “만일 사회과라는 큰 틀을 타파하는 것이 정말 불가피하다면, 이 경우 사회과 관련 교과 혹은 과목들을 하나의 블록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느슨한 형태가 되어야 한다.” (류승렬, 2000: 10)라고 모든 수준의 통합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과목의 독립성을 살리는 통합에 대하여는 타협의 여지를 보이고 있다.

이상과 같이 최근 우리나라에서 사회과교육의 통합적 접근에 대한 인식은 점

차 상대화 되어 가고 있고 현실화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사회과의 통합에 대해서도 다양한 수준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사회과 교육의 통합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선택의 폭을 넓히고 유연한 구상을 가능하게 해주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금후 사회과 교육의 통합에 관한 논의는 이러한 인식의 변화 혹은 전환을 확인하고 그 전제 위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¹²⁾

3.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의 통합적 접근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지금까지 추구하여 왔던 통합의 정신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틀에 입각하여 편제 자체에서 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여기서는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의 성격, 목표, 내용, 방법의 순서로 통합의 정신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 지 살펴본다.

1) 교과 성격에서의 통합적 접근

사회과의 성격 에서는 사회과의 학습 요소의 통합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사회과는 지리, 역사 및 제 사회과학의 개념과 원리, 사회 제도와 기능, 사회 문제와 가치, 그리고 연구 방법과 절차에 관한 요소를 통합적으로 선정, 조직하여 사회 현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탐구한다. 특히, 사회과에서는 우리의 삶의 터전인 국토의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와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과 우리의 현실에 대한 역사적인 시각에서의 이해 및 한국인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과 세계시민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과 가치·태도 등에 관한 요소를 중시한다. 사회과는 사회 과학을 비롯한 광범위한 분야의 자원으로부터 학습 요소를 선정한다.

즉 사회과는 지리학, 역사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문화 인류학, 심리학, 철

12) 이명희, 2003, “통합사회과의 새로운 가능성 탐색,” 『교원교육』, 제19권 (1), 한국교원대학교, 82.

학 등에서 사회과 교육에 필요한 지식과 가치, 그리고 학습 방법과 절차, 학습 자료 등에 관한 요소를 선정하여 통합적으로 조직된다.

따라서 사회과 교육 과정 운영 및 단원의 학습 전개에 있어서도 통합의 원칙을 고려하여 「인간과 환경」, 「인간과 시간」, 「인간과 사회」 등의 내용이 종합적으로 이해되도록 하고, 지식, 경험, 생활이 서로 통합되어 습득한 지식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목표에서의 통합적 접근

사회과 목표는 종합 목표와 영역별 목표로 나누어지는 데 종합 목표에서는 “사회 현상에 관한 기초적 지식과 능력은 물론 지리, 역사 및 제 사회 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발견하고 탐구하는 능력을 익혀, 우리 사회의 특징과 세계의 여러 모습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며” 라고 하여 통합적인 성격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영역별 목표에서는 사회과의 통합 교과적 특성을 살리기 위해 학습 내용인 “사회의 여러 현상과 특성을 그 사회의 지리적 환경, 역사적 발전, 정치·경제·사회적 제도” 등과 관련하여 가르칠 것을 강조하고 있다.

3) 내용에서의 통합적 접근

내용 조직의 원리 면에서도 주제 또는 문제를 중심으로 한 내용과 방법의 통합, 생활 경험과 지식의 통합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특히 중학교 사회과에서는 사회과 교육의 통합성과 사회 과학 교육의 계통성 간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사회과의 역사, 지리, 제 사회 과학의 학문의 고유성을 고려하면서 사회 과학 개념 확대의 원칙을 고려하였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내용과 방법의 통합, 지식과 기능의 통합, 지식과 가치의 통합을 통하여 고등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4) 교수·학습 방법에서의 통합적 접근

(1) 교재의 재구성과 주제 및 문제 중심의 접근

교사는 교과서의 단원을 분석하여 학생 자신에게 의미 있고 사회적으로 공유되며, 풍부한 개념과 일반화가 도출될 수 있는 주제와 문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재구성하여 지도함으로써 의사 결정력, 문제 해결력, 그리고 개념화 능력을 기르도록 하여야 한다. 고차적 사고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나 논쟁점, 새로운 지식, 그리고 개인 자신이나 개인간의 갈등에 의해서 자극되어진다.

따라서 사회과는 학습자 개개인들이 그들 자신의 문제이자 실생활 경험에서 도전적인 과제로 인지하는 주제와 문제를 통해 사회 현상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넓히고 인간 생활과 사회 현상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며 실생활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어떤 주제나 문제, 어떤 학습자, 어떤 상황에서도 똑같이 좋은 효과를 보여주는 단일한 교수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순전히 교사의 강의에 의해서 의존하는 수업을 지양하고, 주제나 문제에 적합한 그리고 학습자들의 흥미와 관심이 고려된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을 전개한다.

(2) 통합적 교수 방법의 강조

사회과는 종합적이며 통합적인 교과이며, 따라서 사회과 교육은 사회 현상을 종합적으로 이해시켜야 한다. 사회과의 통합적 학습은 학문 또는 생활 영역 간의 통합은 물론, 지식·기능, 가치·태도가 상호 유기적 관계를 맺도록 함으로써 지식과 행동의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통합의 방법은 활동 중심, 탐구 중심, 주제 중심, 기능 중심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① 내용영역 간의 통합

사회과의 통합은 학교 현장에서의 수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과 통합의 이유는 사회과 교육이 궁극적으로 성숙한 민주 시민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며 1차적으로 사회 인식을 목표로 한다는 데 있다. 여기서 사회 인식은 사회적 사실과 현상의 계열화, 구조화를 말하는 바, 사회적 사실과 현상을 발견하고 그것을 시간적, 공간적 및 논리적 축에 따라 계열화시키는 정신 활동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과 교육 과정의 운영에 있어서도 어느 한 영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영역이 분명히 드러난 단원이나 주제를 지도할 때에도 지리,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여러 영역 생활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지도한다.

② 내용과 경험의 통합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지식은 학습자의 활동, 경험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단편적인 사실적 지식이 망라된 사회과의 비판이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되는 이유는 사회과에서 본래 구성 체계를 달리하는 학문들이 공존하고 있어서 각각 다른 논리로 각자의 내용을 고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과는 타 교과에 비해 교과의 양이 많아지는 경향을 지니고 있는 바, 수업 구성에서 교사는 지식의 구조화라는 측면에서 교재를 정선했을 필요가 있다.

사실적 지식을 바탕으로 서술된 교재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교사는 사실적 수준의 정보를 자료나 사례로 보고 그것들로부터 개념을 추출하고 다시 일반화를 구성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사는 사실적인 내용을 과감하게 정선, 축소하고 그것을 학생의 이해 수준에 맞는 형태로 구조화하여 가르쳐야 한다.

③ 내용과 방법의 통합

사회과의 지도에서는 내용과 방법이 유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내용과 방법이 유리되면 경험의 구체적 사례가 도외시되고 흥미나 도야에 관하여 그릇된 생각을 가지게 되며 학습 행위 자체가 직접적 의식적 목적이 될 뿐만 아니라 방법을 획일적이고 고정된 철학, 즉 기계적으로 처방된 단계에 따르는 것으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제7차 교육과정의 사회과는 교육 목표면에서 통합을 지향하고 있으며 교과서 내용 조직 원리, 교수·학습 차원에서도 통합의 방식을 적극 강조하고 있다.

4. 제7차 중학교 사회과 통합교육과정의 실태와 문제점

1) 현행 중학교 사회과 통합교육과정의 실태

(1) 현행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내용 구성상의 특징

먼저, ‘중학교 사회과 교육 내용 구성’ 상의 특징을 통합의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제7차 교육과정 해설서(1997)에 나오는 ‘내용 조직의 원리’와 ‘중학교 사회과 내용 체계’를 중심으로 고찰할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 있어서 중학교 ‘사회’는 국민공통기본과정 과목 중에 하나이며, 교육과정 해설서(교육부, 1999: 257-258)에서 사회과의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 조직 원리에

따라 구성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첫째, 중학교에서는 초등학교에서 획득한 생활중심의 개념, 원리와 같은 지식들을 보다 정교화하여 사회 현상의 이해를 역사, 지리, 사회과학의 기초적 지식을 중심으로 하여, 이러한 정교화된 기초적 지식을 바탕으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사회와 국가의 문제 및 과제들을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중학교 전체로는 공간의식(지리)과 시간의식(역사)을 바탕으로 사회 현상(일반사회)에 대한 의식을 발전시켜 나가는 구조를 가지고, 최종 학년인 3학년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 국가 문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셋째, 1학년은 지리 영역 중심에 역사(세계사)영역을, 2학년은 역사(세계사)영역 중심에 일반사회 영역을 3학년은 일반사회 영역 중심에 지리 관련 영역을 배열함으로써 매 학년마다 2개 영역간의 상관형 통합을 하여, 학습 과정에서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넷째, 각 학년에서 영역이 넘어갈 때마다 앞 뒤 단원에 통합 단원을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3학년의 지리 영역도 통합적인 성격의 단원으로 구성하여 통합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사회과 학습의 입문 시기인 중학교 1학년의 처음 단원과 마무리 시각인 3학년의 끝 단원은 완전 통합 단원을 배치하여 통합적 시각에서 사회 현상을 보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각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생활 주변의 사회 현상 파악으로부터 각 지역 → 국가 → 세계의 사회 현상 파악과 문제 해결의 내용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내용 체계가 되도록 내용을 배열하고 조직하였다. 즉 환경확대가 일어나도록 단원의 순서를 연결하는 통합을 실시하였다.

일곱째, 국사 영역을 사회과에 통합시켜 역사적 사실과 현상을 지역 및 사회 현상과 연계시켜 학습하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위의 조직 원리에 따라 구성된 중학교 사회과의 교육 내용 체계를 도식화하면 <표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4. 제7차 사회과 교육 내용 체계

| 학년 | 7(1학년) | 8(2학년) | 9(3학년) |
|--------|--|--|---|
| 인간과 공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과 사회 탐구 (완전 통합) ◦ 중부 지방의 생활 ◦ 남부 지방의 생활 ◦ 북부 지방의 생활 ◦ 아시아 생활 및 아프리카의 생활 ◦ 유럽의 생활 ◦ 아메리카 및 오세아니아의 생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 개발과 공업 발달 ◦ 인구 성장과 도시 발달 |
| 인간과 시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세계의 형성 ◦ 서양 근대 사회의 발전과 변화 ◦ 아시아 사회의 변화와 근대적 성장 <p><국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역사의 시작 ◦ 삼국의 성립과 발전 ◦ 통일 신라와 발해 ◦ 고려의 성립과 발전 | <p><국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의 성립과 발전 ◦ 조선 사회의 변동 ◦ 개화와 자주 운동 ◦ 주권 수호 운동의 전개 ◦ 민족의 독립 운동 ◦ 대한민국의 발전 |
| 인간과 사회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 세계의 세계 (역사, 일반사회 상관형 통합) ◦ 현대 사회와 민주 시민 ◦ 개인과 사회의 발전 (일반사회, 역사 상관형 통합) ◦ 사회 생활과 법규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 정치와 시민 참여 ◦ 민주 시민과 경제 생활 ◦ 시장 경제의 이해 ◦ 현대 사회의 변화와 대응(일반사회 간 통합) ◦ 지구촌 사회와 한국 (완전 통합) |

출처 : 교육부, 1997, 사회과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서, 259.

(2) 사회과 교육 내용 구성상의 통합의 실태

제7차 교육과정에 있어서 중학교 사회 과목이 원론적으로는 매 학년마다 2개 영역간의 상관형 통합을 추구하고, 중학교 1학년 처음 단원과 3학년 마지막 단원은 완전 융합형으로 구성하는 등 통합사회과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표4>와 같이 역사, 지리, 일반 사회 세 영역이 “인간과 공간”, “인간과 시간”, “인간과 사회” 라는 범주로 고르게 배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지리, 역사, 일반사회로 고르게 삼분법적으로 배분된 각 영역별 내용 역시 단원과 단원간의 연계성이나 학생의 흥미·요구, 실제 생활의 경험 등이 반영되지 못하여 통합적 시각이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다.

또한 대단원 수준에서의 통합을 시도하고 있는 2개 단원도 중단원 수준에서 다시 지리, 역사, 일반사회로 내용이 분리되어 기술되어 있다. 예컨대, 1학년 첫 번째 대단원 <I. 지역 사회 탐구>는 1. 지역 사회의 이해, 2. 지역 사회와 환경, 3. 지역 사회의 변화와 발전, 4. 지역 사회의 주민 활동 등 4개 중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두 번째 중단원은 지리 영역, 세 번째 중단원은 역사 영역, 그리고 네 번째 중단원은 일반사회 영역임을 제목을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교과와 교과 명칭만 <사회>로 통합되었을 뿐 실질적인 내용 통합은 전혀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행 중학교 사회과에서의 통합은 통합 사회과의 취지를 반영한 형식상의 통합일 뿐, 교과서의 구체적인 내용 구성이나 사회과의 통합적 지도를 위한 제반 여건 등에서는 실질적인 통합이 미흡한 실정이다.

2) 사회과 통합교육과정의 문제점

상이한 3개 영역의 내용 요소들을 하나의 교과서 속에 아무런 연계성도 없이 배열해 놓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은 다양하고 심대하다. 우선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목표와 실제 교과서 내용 구성이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을 들 수 있다.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내용을 ‘통합적으로 조직’하여 학습자의 종합적인 이해를 돕는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 교과서 내용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다. 이는 교육과정과 교과서 모두에 대한 신뢰감을 저하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사회과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더욱 중요한 문제점은 학습자의 학습효율을 높이기 어렵다는 점이다. 예컨대 고대 이집트 문명을 학습함에 있어서 현재는 1학년 교과서 다섯 번째 대단원에 이집트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에 대한 언급도 없이 바로 이집트 문명에 대한 역사영역의 설명만이 나열되어 있다. 정작 이집트에 대한 지리적인 내용은 맨 마지막 아홉 번째 대단원에서 역사 영역과의 연계없이 진술되어 있어 교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들 영역을 연계시켜 지도해 주지 않는 한 학생들이 스스로 이들 영역을 연계시켜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 밖에 사회과 교사들이 수업하기에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는 점도 중요한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들은 대부분 대학에서 지리, 역사, 일반 사회 중 하나의 영역을 전공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자신이 전공하지 않은 낮은 영역의 내용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가르치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¹³⁾

그럼 현재의 교육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의미있고 바람직한 통합 모형을 제시해 주면 이상적이지만 현재로서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교사들이 직접 교수·학습 수준에서 교과서 내용을 재구성하여 통합적인 수업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다음 장에서 통합이 가능한 부분 이집트 문명을 사례로 교수·학습 수준에서 통합형 수업 모형을 설계하였다.

13) 손명철, 전계서, 59.

III. 사회과 통합형 수업 모형의 개발과 적용

1. 통합형 수업 모형 개발의 기본 방향 및 설계

통합의 대상(내용)에 있어서는, 사회과의 내용 영역인 역사중심·지리중심·일반사회 중심의 통합이 가능하다. 지리 중심의 통합에서는 ‘지역’을 근간으로 ‘자연 환경’, ‘사회 환경’, ‘역사 환경’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을 들 수 있다. 즉, 지표상의 특정 지역이 항상 자연 환경, 사회 환경, 역사 환경의 유기적 교차관계로 구성되는 지리 공간이기 때문에 ‘지역’을 중심으로 역사, 사회 영역의 통합이 가능하다. 여기서는 이집트 문명을 사례로 지리 중심의 통합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는 『9. 인류의 기원과 고대 문명의 형성 <9-3>오리엔트의 고대 문명 2. 이집트 문명』 단원에서 이집트 문명을 3가지 주제에 따른 통합형 학습 지도안을 설계하였다. 학습 지도안을 설계하면서 목표의 재구성, 설명되어야 할 기본지식의 선정 및 조직화, 수업 보조 자료를 포함되도록 하였다.

수업 방법은 교사 활동 중심형과 학생 활동 중심형을 절충한 문답법을 사용하였다. 수업의 형태에 따라 교사 활동 중심형과 학생 활동 중심형, 그리고 절충형으로 나눌 수 있다. 교사 활동 중심형은 강의식, 시청각매체 활용법 등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교사들의 통합지식을 많이 필요로 한다. 학생 활동 중심형은 과제 제시형, 토의법 등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교사가 선행 교육과정을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절충식으로는 문답법을 들 수 있다.¹⁴⁾

이집트 단원의 통합형 수업 모형 설계는 표5와 같이 구성되었다.

14) 안미원, 2001, 사회과 통합교육과정 수업 모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0.

표 5. 이집트 단원의 통합형 수업 모형 설계

| 차시 | 학습 주제 | 학습내용 | 학습 자료 |
|-----|---------------------|--|---|
| 1/3 | ◆ 나일 강의 선물 -자연환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기후 • 이집트는 나일 강의 선물 • 범람주기와 학문 • 가옥구조 이해 • 나일 강을 찬양하는 시 완성 하기 • 부유한 집 설계하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집트의 고지도 • 농사가 가능한 지역 • 범람 주기와 농사 • 탐구 활동지 1, 2 • 가옥 구조 자료 |
| 2/3 | ◆ 파라오의 나라 -물질 문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치구조 •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 상형 문자와 그 해독 • 자신의 문자 만들기 • 나만의 피라미드 만들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집트의 신분 구조 • 피라미드 • 스�핑크스 • 로제타석 • 이집트 문자 • 탐구 활동지 1, 2 • 피라미드 만들기 자료 |
| 3/3 | ◆ 신들의 나라 -정신 문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세관(영생을 꿈꾸는 미라) • 사자의 서 • 신의 종류와 역할 • 자신만의 신을 창조하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탕카멘 • 사자의 서 • 이집트 신 • 탐구 활동지 1, 2 • 미라에 관한 카드 놀이 자료 |

그리고 통합형 수업 모형을 설계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내용 영역 간의 통합을 시도하였다. 1차시에서는 나일강의 위치(지리)와 범람으로 인한 학문 발달(역사), 기후로 인한 이집트인의 생활(일반사회)을 통합하여 연관성을 찾으려고 시도하였다. 2차시에서는 통치 구조(일반사회), 피라미드의 위치(지리)를 살펴보면서 피라미드가 나일 강 서쪽에 위치해야 하는 이유와 피라미드를 만드는 데 동원된 계층을 통합하여 살펴보려고 하였다. 3차시에서는 자연적인 미라(지리)에서 인위적인 미라 만드는 기술이 발달(역사)하였음을 통합하여 연관성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둘째, 목표별 통합을 시도하였다. 매 차시마다 인지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을 통합하였다. 1차시에서는 “1. 이집트의 지형과 기후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인

지적 측면)”, “2. 나일강을 찬양하는 시를 완성할 수 있다(기능적 측면)” 을 설정하여 통합을 시도하였다. 2차시에서는 “1. 이집트의 통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인지적 측면)”, “2. 상형 문자를 이용하여 자신의 문자를 만들 수 있다(기능적 측면)” 을 설정하여 통합을 시도하였다. 3차시에서는 “1. 이집트인들이 미라를 만드는 이유를 알 수 있다(인지적 측면)”, “2. 자신만의 신을 상상하여 만들 수 있다(기능적 측면)” 을 설정하여 통합을 시도하였다.

셋째,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하여 이집트인들이 사용하던 부적을 탐구 활동지나 그림 자료 등에 삽입하였다. 스카라베, 앙크, 호루스의 눈 등을 삽입하여 자연스럽게 이집트 문명에 동화되도록 하였다. 또한 나일 강을 찬양하는 시를 완성하여 보기, 상형 문자로 이름 써 보기, 피라미드 만들기, 미라 만드는 과정에 관한 카드 놀이 등을 소개하면서 학생들이 이집트 문명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끔 구성하였다.

2. 통합형 수업 모형의 실제(학습 지도안)

1) 1차시 학습 지도안

1차시의 학습 주제는 ‘나일 강의 선물 - 이집트’ 로 구성되었다. 1차시는 자연 환경으로 인해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도록 시도하였다.

이집트의 고지도(부록1)를 보면서 이집트의 폐쇄적인 지형을 이해하고 남북으로 관통하는 강이 나일 강임을 확인한다. 나일 강의 여러 역할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농사를 가능하게 하였음을 이해한다. 농경이 가능한 지역(부록2)을 살펴면서 농경이 가능한 나일 강 주변의 흑토지역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았음을 이해한다. 나일 강의 범람주기와 농사와의 관계(부록3)를 보면서 발달한 학문을 파악한다. 나일 강을 찬양하는 시를 완성하는 활동을 해보게 한다. 또한 읽기자료(부록 4)를 보면서 나일 강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집을 지었음을 이해하고 직접 이집트의 집을 그려볼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한다.

1차시는 교수·학습 과정안, 수업 전개안, 탐구 활동지 1, 탐구 활동지 2, 탐구 활동지 3 순서로 제시하였다. 그림 자료와 읽기 자료는 부록에 수록하였다.

(1) 1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1차시 교수·학습 과정안은 다음 표6과 같다.

표 6. 1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 교수·학습 과정안 | | | | | |
|-----------|---|---|--|-----------------------|-------|
| 교과서 | 금성출판사 | 대상 | 중학교 1학년 | 차시 | 1/3 |
| 대단원 | 9. 인류의 기원과 고대 문명의 형성 | | | | |
| 중단원 | 9-3. 오리엔트의 고대 문명 2. 이집트 문명 | | | | |
| 주제 | 나일 강의 선물 - 이집트 | | | | |
| 학습 목표 | 1. 이집트의 지형과 기후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2. 나일 강의 범람으로 인해 발달한 과학 기술을 설명할 수 있다. 3. 나일 강을 찬양하는 시를 완성할 수 있다. | | | | |
| 학습 자료 | 그림자료(1-3), 탐구 활동지(1-2), 읽기자료, 사회과 부도 | | | | |
| 수업 형태 | ICT 활용 문답식 수업 | | | | |
| 참고 사이트 | http://www.civilization.ca/.members/civiliz/egypt/image www.visitegypt.co.kr | | | | |
| 학습 단계 | 학습내용 | 교수·학습 활동 | | 자료 | 시간(분) |
| | | 교수 활동 | 학생 활동 | | |
| 도입 | 생각열기 | ▶이집트 하면 떠오르는 것은? ▶학습목표를 확인 | ▷자유롭게 대답한다. ▷함께 읽는다. | | 5' |
| 전개 | ▲이집트의 위치 확인 | ▶이집트의 고지도를 보면서 지리적 위치를 설명한다. -이집트는 아프리카 어느 쪽에 위치하는가? -서쪽에 위치한 사막과 동쪽에 위치한 사막의 이름은? -북쪽에 위치한 바다와 동쪽에 위치한 바다의 이름은? -이집트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강의 이름은? -이집트의 지형이 개방적인가, 폐쇄적인가? | ▷사막과 바다로 막혀 있어서 폐쇄적 지형으로 오랫동안 통일을 유지하였음을 이해한다. ▷사회과 부도를 통해 위치를 확인 한다. | ◆그림자료1 ◆사회과 부도 | 30' |

| | | | | |
|-----------------------------------|---|---|---------------|--|
| <p>▲ 이집트는 나일 강의 선물</p> | <p>▶ 이집트는 ‘나일 강의 선물’이라는 말의 의미를 설명한다. -오천년 전에 이집트에서 위대한 문명이 시작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집트에서 나일 강은 어떻게 이용되었을까? -나일 강이 이집트 사람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p> | | | |
| <p>▲ 기후와 생활</p> | <p>▶ 이집트의 기후와 사람들의 생활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p> | <p>▷ 나일 강의 역할과 고온 건조한 기후 조건을 이해한다.</p> | | |
| <p>▲ 농사가 가능한 지역 확인</p> | <p>▶ 농사는 어느 지역에서만 가능한가?</p> | <p>▷ 나일 강 연안을 따라 발달한 길고 좁은 지대는 이집트에서 가장 비옥한 곳임을 이해한다.</p> | <p>◆그림자료2</p> | |
| <p>▲ 범람과 농사 주기, 실생활과 관계 있는 학문</p> | <p>▶ 범람과 농사 주기와의 관계, 발달한 기술을 설명한다. -범람과 농사 주기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범람주기에 따라 이집트에서 발달한 달력은 무엇인가? -나일 강의 범람을 예측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일 강이 범람한 후 이를 이용하기 위한 것은 무엇인가? -하천의 범람과 왕권과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p> | <p>▷ 나일 강의 범람과 농사 주기를 이해한다. ▷ 범람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실용적인 과학 기술이 발전했음을 이해한다.</p> | <p>◆그림자료3</p> | |
| <p>▲ 이집트인의 가옥 구조 이해</p> | <p>▶ 이집트인의 가옥구조를 설명한다. -이집트인들은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집을 지었을까? -가난한 사람들의 집과 부자들의 집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p> | <p>▷ 읽기 자료를 읽는다. ▷ 댐의 건설로 범람이 일어나지 않음을 이해한다.</p> | <p>◆읽기자료</p> | |
| <p>▲ 오늘날의 나일 강</p> | <p>▶ 오늘날은 나일 강이 범람할까?</p> | | | |

| | | | | |
|----|--|---|--|-----|
| 정리 | <p>▲ 탐구 활동지 풀기</p> <p>▶ 탐구 활동지 1을 제시한다.</p> <p>-자료 1을 볼 때 농사는 어느 지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가?</p> <p>-자료 2를 보면 이집트 사람들은 가을인 12~1월에 씨를 뿌리는 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p> <p>-이집트에서 나일 강의 범람 때문에 발달한 기술은 어떤 것이 있는가?</p> <p>-‘이집트는 나일 강의 선물이다’라고 말한 서양 역사의 아버지는 누구인지 알아보고, 이 말의 뜻을 생각해보자.</p> <p>▶ 이집트를 찬양하는 시를 읽고 뒷부분을 완성하여 보자.</p> <p>▶ 다음 시간까지 부유한 사람들의 가옥을 그려오게 과제를 제시한다.</p> | <p>▷ 탐구 활동지 1을 풀면서 정리한다.</p> <p>▷ 탐구 활동지 2를 완성한다.</p> <p>▷ 이집트의 가옥을 그려본다.</p> | <p>◆ 탐구활동지 1</p> <p>◆ 탐구활동지 2</p> <p>◆ 탐구활동지 3</p> <p>◆ 읽기자료</p> | 10' |
|----|--|---|--|-----|

(2) 1차시 수업 전개 안

♀ 수업 전개 안 ♀

▶ 이집트는 아프리카 어느 쪽에 위치하는가? (부록1)

- 북동쪽에 위치하며, 사하라 사막 안에 놓여 있다.

▶ 서쪽에 위치한 사막과 동쪽에 위치한 사막의 이름은 무엇인가?

- 서쪽은 리비아, 동쪽은 아라비아 사막이다. 국토의 90%가 사막이다.

▶ 북쪽에 위치한 바다와 동쪽에 위치한 바다의 이름은 무엇인가?

- 지중해와 홍해이다.

- 이러한 지리적 위치로 인하여 이집트는 고대 세계 무역의 핵심이 되었다

▶ 이집트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강의 이름은 무엇인가?

- 나일 강이다.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이기 때문에 강을 따라서 촌락과 마을이 형성되었다.

- 아프리카 대륙 북동쪽에 자리잡은 이집트에서는 모든 생활이 남에서 북으로 관통하는 나일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나일 강은 서쪽 리비아 사막의 모래 언덕과 동쪽 아라비아 사막인 산악 지대를 가로 지른다. 나일 강은 에티오피아의 산악 지대와 아프리카 동부의 커다란 호수들에서 발원하여 여러 갈래의 하천을 통해 지중해로 흘러들어간다. 강 하류 지역은 이집트에서 가장 기름진 땅인 삼각주(델타)가 발달해 있다.

▶ 이집트의 지형이 개방적인가, 폐쇄적인가?

- 사막과 바다로 막혀있는 폐쇄적 지형으로 오랫동안 통일(3천년 이상)을 유지하였다.

- 이집트가 통일되기 전에는 두 개의 왕국으로 나뉘어 있었다. 남쪽에는 상이집트가 있었고, 북쪽에는 하이집트가 있었다. 두 왕국이 통일되고 나서 3천년 동안 찬란한 이집트 문명이 꽃피었다. 고대 이집트는 크게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 등 세 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 나일 강이 교통의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하여 왕국을 번영시킬 수 있었다.

▶ 오천년 전에 이집트에서 위대한 문명이 시작될 수 있었던 주요 이유는 무엇일까?

- 나일 강 덕분이다. 나일 강 덕분에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대부분의 땅이 사막이기 때문에 나일 강이 없었다면 물 한 방울 찾아보기 어려웠을 것이다.

▶ 이집트에서 나일 강은 어떻게 이용되었을까?

- 나일 강의 홍수는 매년 일정한 시기에 일어나 쉽게 예측할 수 있었고, 이집트의 완만한 사막을 서서히 흘러가면서 상류의 비옥한 흙을 하류에 쌓아, 온갖 풀과 나무들이 자라고 짐승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 나일 강의 물을 마시고 목욕하고 어부들은 물고기를 잡고 사냥꾼들은 강둑에서 새들을 잡고 배가 나일 강을 오르내리며 사람들과 짐을 실어 날랐다.

▶ 나일 강이 이집트 사람에게 준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 진흙이다.
- 나일 강 상류의 아비시니아 고원에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져 나일강에 강물이 불어나 고원의 기름진 흙과 함께 흘러 내려가면서 강둑을 넘어 강변에 기름진 흙을 뿌려주고 나일 강 하류에는 상류와 중류에서 깎여 내려온 기름진 흙이 부챗살 모양으로 쌓여 생긴 광활한 델타(삼각주) 평야가 형성된다.

▶ 농사는 어느 지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가? (부록 2)

- 나일 강 주위의 땅을 검은 땅(흑토)이라고 부른다. 검은 땅은 비옥하고 기름져서 농사를 짓기에 가장 좋은 곳이다. 사하라 사막은 반대로 붉은 땅(적토)이라 불리우며 강수량에 비해 증발량이 많아 사람이 살 수 없고 식물도 자랄 수 없다. 그래서 붉은 색은 이집트인들에게 건조한 사막을 떠올리게 하여, 불운을 뜻했다.

▶ 이집트의 기후와 이집트의 생활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 1년 내내 따뜻하고 건조한 나라였다.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집트인들은 될 수 있으면 옷을 적게 입어서 더위를 이겨 보려고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남자들은 팬티(혹은 짧은 치마)같은 걸 입고 여자들은 간단한 드레스를 즐겨 입는다 부자들에게 가장 시원한 옷차림은 질 좋은 아마천으로 만든 하

얀 색의 우아한 옷이었다. 이 옷감은 실크만큼이나 부드럽고, 면보다 더 질기고 시원했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다. 어린 아이들은 옷을 거의 안 입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맨발로 다니지만 끝이 구부러진 샌들을 갈대를 짜서 만들거나, 가죽으로 만든 것을 신고 다녔다. 또한 더운 날씨 때문에 머리를 짧게 깎았다. 그러나 부자들은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가발을 썼다. 가발은 장식은 물론이고 머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

- 이집트에서는 더운 기후에 피부를 보호하고 날벌레들을 쫓기 위해 눈 주위에 초록색 연고를 발랐다. 이런 전통들이 이어져 현재의 화장이 되었다. 날씨가 더운 이집트에서는 개방적인 의복 형태가 발전하여 신체를 거의 노출시켰다. 이러한 노출은 대신 장식 욕구를 부추겼다. 게다가 이집트인들의 풍부한 미적 감각과 내세를 믿는 종교 관념은 장신구를 한층 더 발전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 **나일강의 변화와 농업은 어떤 관계일까? (부록 3)**

- 범람기 - 매년 6월 중순부터 강물이 불어나기 시작하여 10월경에 가장 높았다. 나일 강은 상류에서 흘러내린 비로 6월 초부터 강물이 불어나 8~9월에는 넘쳐흐르기 시작한다. 이 때 건조한 땅에 있던 소금기를 바다로 흘러보내고, 대신 상류로부터 운반된 비옥한 흙이 쌓여 나일 강 유역은 농사짓기에 적합한 땅으로 변하게 된다.
- 파종기 - 범람 뒤 12월경에 수위가 낮아져 원 상태로 돌아가면, 비옥해진 땅에 보리와 밀의 씨앗을 뿌렸다.
- 수확기 - 파종이 끝난 뒤 이듬해 3~5월경의 건조기에 농작물(밀과 보리)을 거두어 들였다.

▶ **범람 주기에 따라 이집트에서 발달한 달력은 무엇인가?**

- 세 계절(범람기, 파종기, 수확기)을 관찰함으로써 고대 이집트인들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달력을 개발하였다.
- 이집트에서는 6월 중순 나일 강의 범람이 시작될 무렵, 해뜨기 직전 동쪽 하늘에 시리우스별이 반짝였다. 이집트인들은 이 별을 보고 그 해의 첫날로 삼았다. 이를 태양의 위치와 연결시켜 만든 이집트 태양력은 로마에 전해져

현재 태양력의 시초가 되었다.

- 1년을 12개월, 1개월을 30일로 나누었다.

▶ **나일 강의 범람을 예측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 강의 범람 시기를 예측하고 씨뿌리는 시기를 정하기 위해서 천문학이 발달하고 태양력이 만들어졌다.

▶ **나일 강이 범람한 후 이를 이용하기 위한 것은 무엇이 있는가?**

- 범람 후 토지 측량을 위해 새로이 구획을 정리하는 경지 정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경지 정리 작업은 세금을 거두는 데도 기초가 되기 때문에 측량술과 수학(10진법), 기하학이 크게 발전하였다. 측량술(삼각 측량법)은 피라미드 건축에도 응용되었다

- 이집트의 과학 기술은 그리스와 로마에 전해져 유럽 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 **하천의 범람과 왕권과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

- 하천의 범람 때문에 농지 정리와 관개 시설 등 대규모 토목 공사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였고, 이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절대적인 권력자가 등장하였다.

▶ **이집트 사람들은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집을 지었을까? (부록 4)**

- 집은 홍수가 나도 물이 차지 않는 높은 곳에다 지었다. 부자의 집이나 가난한 사람의 집이나 재료는 큰 차이가 없었다. 지붕에는 종려나무, 햇볕에 말린 흙벽돌, 벽에 바른 골풀 등이 사용되었다. 집은 거의 진흙 벽돌로 지었으나, 신전이나 무덤, 궁전은 돌로 지었다.

- 나무가 아주 귀하기 때문에 나무로 만든 가구는 무척 값이 비싸다.

▶ **가난한 사람들의 집과 부자들의 집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 부자의 집은 규모나 구조면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집과 달랐다. 가난한 집에는 집의 구조가 단순했으며 대개 방이 하나 정도이고 가구가 별로 없었다. 조그만 탁자, 의자 몇 개, 돛자리 몇 개 정도였다. 그들에게 지붕(테라스)은 아주 중요했다. 집에서 또 하나의 방 역할을 해서, 그 곳에서 놀고, 음식을 만들고, 일을 했다.

- 부자들은 정원이 딸린 넓은 집을 가지고 있었다. 요리와 빨래 같은 여러 가지 집안일을 해줄 하인들도 두었다. 부자들의 집은 부엌, 하인들의 거처, 욕실,

화장실, 침실, 연못 등으로 구분되어 만들었다. 베개는 나무나 상아, 혹은 돌로 만든 머리 받침을 이용하는데, 머리가 땅에 닿지 않도록 해 주기 때문에 바람이 잘 들고 전갈이나 뱀이 돌아다닐 때는 필요하다.

▶ **오늘 날은 나일 강이 범람할까?**

- 1971년에 건설된 아스완 댐이 홍수를 막아주기 때문에 나일 강이 범람하지 않는다. 강이 범람하지 않으니까 진흙도 밀려오지 않는다. 예전에는 나일강이 공짜로 양분을 선물 했었는데 이제는 땅이 산성화되면 화학 비료를 사서 뿌려야한다.



(3) 탐구 활동지 1

♀ 탐구활동지 1 ♀

👁 다음 자료를 읽고 제시된 활동을 해 보자. 👁

지중해
팔레스타인
메피스
테베
사하라 사막
나일강
홍해
백나일강
청나일강

0 400km

▲ 피라미드
■ 농경 지역

자료 1. 농경 지대의 분포

나일 강 물높이의 변화와 농업과의 관계

매년 6월 중순부터 강물이 불어나기 시작하여 10월경에 가장 높았다.
범람기

범람 뒤 12월경에 원 상태로 돌아가면, 비옥해진 땅에 씨를 뿌렸다.
과종기

과종이 끝난 뒤, 이듬해 3~5월경의 건조기에 농작물을 거두어 들였다.
수확기

자료 2. 나일강의 농업 생활 변화

1. 자료 1을 볼 때 농사는 어느 지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가?

2. 자료 2를 보면 이집트 사람들은 겨울인 12~1월에 씨를 뿌리는 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3. 이집트에서 나일 강의 범람 때문에 발달한 기술은 어떤 것이 있는가?

| | |
|--------------------------|--|
| 나일 강의 범람을 예측하기 위해 필요한 것 | |
| 나일 강이 범람한 후 이를 이용하기 위한 것 | |

4. ‘이집트는 나일 강의 선물이다’ 라고 말한 서양 역사의 아버지는 누구인지 알아보고, 그 말의 뜻을 적어보자.

(4) 탐구 활동지 3

♀ 탐구활동지 3 ♀

👁️ 만약 당신이 고대 이집트의 부유한 귀족이라면 어떤 집을 짓고 싶은지 그려보세요.



2) 2차시 학습 지도안

2차시의 학습 주제는 ‘과라오의 나라 - 이집트 (물질문명)’ 로 설계하였다. 이집트의 통치 구조(부록5)를 보면서 이집트 사회는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과라오의 역할을 살펴보면서 이집트가 왕권과 신권이 결합된 강력한 신권 정치임을 이해한다. 이집트의 주요 문화유산인 피라미드(부록6)와 스�핑크스(부록7)를 살펴보면서 어떤 계층이 이 작업에 참여했으며 나일 강이 피라미드 건설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이해한다. 로제타 석(부록8)으로 인하여 이집트의 문자(부록9)를 해독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이집트 고대 문명을 파악할 수 있었음을 이해한다. 상형문자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름을 표현해 보는 활동을 해보게 한다. 또한 참고 자료(부록10)를 제시하여 직접 피라미드를 만들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한다.

2차시는 교수·학습 과정안, 수업 전개안, 탐구 활동지1, 탐구 활동지 2 순으로 제시하였다. 그림 자료와 피라미드 만들기 자료는 부록에 수록하였다.

(1) 2차시 교수·학습 과정 안

2차시 교수·학습 과정 안은 다음 표7과 같다.

표 7. 2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 교수 · 학습 과정안 | | | | | |
|-------------|---|----|---------|----|-----|
| 교과서 | 금성출판사 | 대상 | 중학교 1학년 | 차시 | 2/3 |
| 대단원 | 9. 인류의 기원과 고대 문명의 형성 | | | | |
| 중단원 | 9-3. 오리엔트의 고대 문명 2. 이집트 문명 | | | | |
| 주제 | 과라오의 나라 이집트 - 물질 문명 | | | | |
| 학습 목표 | 1. 이집트의 통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2. 이집트의 문화 유산을 설명할 수 있다. 3. 상형 문자를 이용하여 자신의 문자를 만들 수 있다. | | | | |
| 학습 자료 | 그림자료(4-8), 탐구 활동지(1-2), 참고 자료 | | | | |
| 수업 형태 | ICT 활용 문답식 수업 | | | | |
| 참고 사이트 | http://www.civilization.ca/.members/civiliz/egypt/image www.visitegypt.co.kr www.pbs.org/wgbh/nova/plyramid/explore | | | | |

| 학습 단계 | 학습내용 | 교수 · 학습 활동 | | 자료 | 시간 (분) |
|-------|--|--|---|---|--------|
| | | 교수 활동 | 학생 활동 | | |
| 도입 | 생각열기 | ▶이집트인들은 왜 피라미드를 만들었을까? ▶학습목표를 확인 | ▷자유롭게 대답한다 ▷함께 읽는다. | | 5' |
| 전개 | <p>▲ 이 집 트의 통치 구조</p> <p>▲ 피라미드</p> <p>▲ 스�핑크스</p> | <p>▶이집트의 신분제 사회를 설명한다. -이집트에는 누가 살았을까?</p> <p>▶나일강의 범람과 피라미드와의 관계를 설명한다. -피라미드가 뭐지? -나일강은 피라미드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피라미드는 어디에 있으며, 왜 그곳에 있을까? -피라미드의 비밀은 언제쯤 풀릴까? -피라미드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도굴꾼들을 속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 -도굴꾼들이 절대 훔쳐갈 수 없는 것들은?</p> <p>▶스핑크스에 대해 설명한다.</p> | <p>▷파라오는 태양신의 아들로 숭배되었으며 정치와 종교가 결합된 강력한 신권 정치임을 이해한다.</p> <p>▶피라미드가 세계의 불가사의 중 하나인 이유를 이해한다.</p> | <p>◆그림자료4</p> <p>◆그림자료5</p> <p>◆그림자료6</p> | 30' |

| | | | | | |
|----|---------------------------------|--|---|--|-----|
| 전개 | <p>▲이집트의 문자</p> | <p>-스핑크스는 무엇인가?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는 무엇인가? -스핑크스의 코는 왜 없을까? ▶로제타 석은 무엇인가?</p> <p>▶이집트의 문자를 설명한다. -이집트의 문자는 어떤 것일까? -파피루스는 무엇인가? -오늘날의 문자는?</p> | <p>▷문자의 발명은 문명 건설의 중요한 유산임을 이해한다. ▷오늘날은 아랍어를 쓴다는 것을 이해한다.</p> | <p>◆그림자료7 ◆그림자료8</p> | 30' |
| 정리 | <p>▲탐구 활동지 풀기</p> <p>▲과제 제시</p> | <p>▶탐구 활동지 1을 제시한다. -피라미드를 만드는 데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 동원되었을까? -피라미드와 같이 엄청난 공사가 가능하였던 배경을 왕권과 관련지어 설명해 보자. -피라미드를 만드는 과정을 설명해 보자.</p> <p>▶탐구 활동지 2를 이용하여 자기 이름의 영문자를 상형문자로 표현해보자.</p> <p>▶다음 시간까지 참고 자료를 제시하며 피라미드를 만드는 과제를 제시한다.</p> | <p>▷탐구 활동지 1을 풀면서 정리한다. ▷탐구 활동지 2를 완성한다. ▷나만의 피라미드를 만들어 보도록 한다.</p> | <p>◆탐구 활동지1 ◆탐구 활동지 2 ◆참고 자료</p> | 10' |

(2) 2차시 수업 전개안

♀ 수업 전개안 ♀

▶ 이집트에는 누가 살았을까? (부록 5)

- 제 1계급 : 파라오(왕비, 왕족)
- 제 2계급 : 귀족(지방 영주, 장군, 신관)
- 제 3계급 : 서기관(의사, 기술자, 상인)
- 제 4계급 : 장인(장례업자, 보통 사제)
- 제 5계급 : 농민

● 파라오 : 이집트에서 최고 높은 사람은 인간이자 신의 아들인 왕이었다. 이집트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 사람을 파라오라고 불렀다. 파라오라는 말은 원래 넓고 화려한 궁전을 말하는 큰집이라는 뜻이었는데 점차 왕 자신을 가리키는 말로 쓰게 되었다. 당시 사람들은 통치자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은 불경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파라오라는 말을 사용했다. 파라오는 사람이면서도 태양신으로부터 아주 강한 힘을 물려받아 이집트를 다스렸다. 즉 왕을 살아있는 신이라고 생각했다. 신이 우주에 생명과 질서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 파라오는 이집트에 생명과 질서를 가져다준다고 믿었다. 파라오는 태양신의 아들로 여겨졌기 때문에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최고의 권위자로 숭배 받았다. 파라오는 이집트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아무도 파라오의 견해에 반대할 수 없었다. 그래서 신을 모시는 일이나 군대를 이끌고 나가 전쟁을 하고 이집트의 영토를 넓히는 것은 모두 파라오가 결정했다. 파라오는 왕(전쟁 수장), 성직자, 신이라는 세 가지 직위를 가지고 있었다. 파라오는 나일강 주변 지역을 배를 이용하여 이집트를 통치하였고, 태양신에 대한 제사를 맡아 보았다.

● 귀족 : 수상이나 대신, 신관 등으로 일하는 귀족들은 파라오의 눈과 귀가 되어 파라오와 함께 이집트를 다스렸다. 귀족들은 넓은 집에서 많은 하인들을 거느리고 편안하고 부유하게 살았다.

● 서기관 : 이집트의 모든 일을 기록하고 보관하던 사람들이다. 대부분의

이집트 사람들은 읽고 쓸 줄 몰랐기 때문에 서기관들이 나라일부터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편지를 대신 써주는 것과 같은 사소한 일까지 전부 돌봐 주었다. 가장 뛰어난 서기관은 궁궐과 신전에서 일하던 사람들로 그들만이 이집트의 상형문자를 완벽하게 다 알고 있었다. 교육을 받아 글을 다루는 서기는 존경받고 돈도 많이 버는 중요한 직업이었다.

- 장인 : 목수, 가구 만드는 사람, 청동을 다루는 사람 등이 한 곳에 모여 살며 감독자의 지휘 아래서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해냈다. 이들이 만든 물건들은 오늘날 여러 곳에서 발견되며, 고대 이집트 시대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이 되고 있다.

- 농민 : 이집트 사회의 가장 하층민들로 농민은 농사만 지을 뿐 땅은 파라오나 신전의 소유였다. 또 이들은 피라미드를 짓는 대대적인 건설 현장에 나가 노동을 해야 했다. 대부분의 농민들이 힘든 노동과 가난에 시달렸지만 이집트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 의해 유지되고 발전한 것이다.

▶ 피라미드가 뭐지? (부록 6)

- 피라미드는 파라오(이집트 왕)의 무덤으로 지은 대형 석조 건축물이다. 이집트에는 약 90여 개의 피라미드가 있다. 피라미드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삼각형 모양의 과자를 의미하는 피라미스에서 유래했다. 고대 이집트 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고 무덤이란 죽은 자가 살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생활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했다. 피라미드는 죽은 자가 편안히 쉴 수 있는 곳, 즉 죽은 자의 무덤이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파라오의 무덤인 피라미드를 만드는 데 공을 많이 들였다. 이집트 사람들은 훌륭한 피라미드를 만들면 그 주인인 파라오가 신들의 왕국에 쉽게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해 돌을 쌓아 아름답고 튼튼하게 만들었다.
- 가장 유명한 피라미드는 이집트의 북동부에 있는 도시 기자에 있는 세 개의 피라미드이다. 기자의 피라미드 중 가장 큰 것을 대피라미드라고 한다. 대피라미드는 쿠푸라는 파라오를 위해 세워졌다.
- 대피라미드를 중심으로 수직선(동경31도)과 수평선(북위 30도)을 그리면 세계가 똑같은 크기의 네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대피라미드의 위치가 세계의 한가운데가 된다.

▶나일 강은 피라미드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1. 나일 강의 범람은 4개월동안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 동안 농부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 왕은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거대한 사업을 벌일 수 있는데, 왕이 보기에 제일 중요한 사업은 자신의 영원한 사후 세계의 안식처인 기념물을 만드는 것이니까 피라미드를 만드는 것이다.
2. 나일 강이 범람하면 계곡이 완전히 고립되기 때문에 이웃 나라들과 오랫동안 전쟁을 벌일 일이 없으니까 대규모 군대를 동원해서 이집트를 지킬 필요가 없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성벽을 만들 필요도 없고 거대한 기념물을 만들 시간이 넉넉하게 생기니까 피라미드를 만들 수 있었다.
3. 나일 강이 범람하는 이유는 열대 우림 지역에 내린 비가 흘러내려오기 때문이다. 이집트인은 비를 구경한 적이 거의 없었다. 따라서 갑자기 나일 강이 범람하면서 비옥한 땅이 생기면, 이집트인은 그것을 하늘이 내린 선물처럼 느꼈다. 강을 범람하게 만드는 사람이 파라오라는 절대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한 국가적인 차원의 공사에 참여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피라미드를 만드는 일이 나중에 죽고 난 뒤 내세로 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었다.
4. 그 당시는 바퀴 달린 운송 수단이 생기기 전이었다. 강이 범람하면 집과 마을을 잇는 길이 물에 잠기기 때문에 농부들은 뗏목을 만들어 사용했다. 나일 강의 범람으로 뗏목 전문가가 생긴 덕분에 커다란 돌을 먼 곳까지 끌고 갈 필요가 없다. 나일 강을 따라 운반하면 되니까 바깥면에 사용할 무거운 돌들을 강 가까이에서 캐내면 바퀴가 없어도 강가에다 거대한 석조 건물을 세울 수 있다.

▶피라미드는 어디에 있으며, 왜 그곳에 있는가?

- 큰 돌 덩어리는 배로 운반했기 때문에 피라미드는 나일 강에 가까운 곳에 세울 수 밖에 없었다. 또한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피라미드를 사막에다 건설했다. 사막 안까지 강물이 범람하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 일 년 내내 쉬지 않고 피라미드를 건설할 수 있었다. 그래서 피라미드는 모두 나일 강의 서쪽 강변에 있다. 서쪽은 해가 지는 쪽이다. 이집트인들은 왕이 죽은 뒤 태양신을 만나러 간다고 믿었다.

- 아주 옛날의 이집트에서는 태양이 지는 나일 강의 서쪽 해변을 따라 피라미드들을 주욱 세웠지만 도굴꾼들을 피해 사람들이 못 찾도록 신왕국 시대부터 왕을 숭배하는 신전이 나일 강가의 계곡에 건립되면서 왕의 무덤은 깎아지른 듯한 바위 절벽으로 둘러싸인 산악 지방에 세워졌다. 왕들의 계곡이라고 불리는 이 곳은 살아 있는 사람은 출입이 금지되었다.

▶ 피라미드는 어느 시기에 많이 만들어졌을까?

- 거대한 피라미드가 만들어진 게 고왕조 때의 일이다. 그래서 때로는 피라미드 시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피라미드는 중왕조 때도 만들어졌지만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다.
- 이집트에는 나무가 드물었으며 아주 귀한 재료였다. 이집트인의 석조 기술이 발달한 것은 이 때문이다.

▶ 피라미드는 누가 만들었을까?

- 나일 강이 범람해서 농토가 물에 잠기면 농부들은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일을 많이 했다. 피라미드 건설은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해준다. 피라미드 일꾼들에게는 빵, 맥주, 양파, 무, 마늘 등을 나누어 주었다.
- 피라미드 건설은 파라오의 무덤을 위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한다.

▶ 피라미드는 처음부터 삼각형 모양이었나?

- 원래는 마스타바라고 하는 지붕 덮인 무덤에서 시작되어 그 위에 또 무덤을 만들어 쌓은 계단식이 되었다. 이후 피라미드를 만드는 기술이 점점 발달해서 계단식이 곡선형으로, 곡선형이 사각뿔 피라미드로 변해갔다.
- 어떤 이들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마치 로켓처럼 하늘로 날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피라미드가 태양과 별들을 가리키도록 지어졌다고 한다.

▶ 피라미드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 피라미드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기자에 있는 쿠푸왕의 피라미드다. 쿠푸왕의 피라미드는 현재 높이만 137m, 2.5톤 짜리 돌이 대략 250만개 정도 쓰였다. 40층짜리 고층 건물만큼 높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석조 기념물이며 이집트 과학 기술의 정수를 보여준다. 각 면이 정확하게 동, 서, 남, 북과 일치한다. 각 면은 51.5도의 각을 이루고 있다.

- 대피라미드의 건설 방법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 헤로도토스가 쓴 책에 의하면 나일 강이 범람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동안 10만 명을 동원해 돌을 다듬었고 그 돌을 나를 수송로를 만드는 데만 10년이 걸렸다. 그 수송로를 이용해 피라미드를 쌓는 데 20년이 걸렸다고 되어 있다.
- 역사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피라미드에 사용된 돌들은 채석장으로부터 나일 강을 따라 바지선을 이용해 운반되었으며, 이것이 나무 썰매에 의해 운반되고 흙으로 만들어진 경사지로 끌어 올렸다. 암석덩이로 쌓아 한 층이 완성되면, 모래(흙)경사로를 만들어 다음 층으로 돌들을 운반한다. 돌로 쌓는 작업이 끝나면 피라미드의 외부는 석회암으로 부드럽게 도색된다. 이는 피라미드를 강렬할 햇살 아래 반짝반짝 빛나게 함으로 멀리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 **피라미드를 왜 불가사의라고 할까요?**

- 하얀 석회암을 사각뿔 모양으로 쌓은 멋진 쿠푸왕의 피라미드는 그 거대한 크기와 복잡한 내부 구조 등으로 세계의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기반, 철기도 없던 시대에 돌을 다듬은 방법, 몇십 년이 걸릴 거라 추정되는 작업 시간, 수 톤에 달하는 돌의 운반법 등 모두 그 당시로는 불가능한 것들이었다. 피라미드를 어떻게 건설하였는지는 아직까지도 신비에 싸여 있다. 다른 어떤 도구도 없이 사람들의 팔과 지렛대만으로 거대한 돌을 쌓아 만든 피라미드, 그 신비는 과연 언제쯤 풀리게 될까?

▶ **피라미드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 피라미드 내부에는 여러 개의 방과 통로가 만들어 졌다. 중앙에는 파라오의 무덤이 있다. 그 안에는 왕이 저승으로 가는 여행에서 쓸 많은 물건들을 넣어 두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죽은 사람들이 쓰던 물건들, 가구와 옷, 음식들을 넣어두어 죽은 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미라 옆에다 함께 묻었다. 특히 음식은 죽어서 만나는 신들에게 대접하기 위해 꼭 준비했다. 여러 물건이나 옷, 가구 등을 넣어두는 것은 다시 시작하는 새 삶에도 편안하게 잘 지내라는 뜻이다.
- 파라오와 왕비의 미라가 함께 누운 피라미드 안에는 왕의 물건들도 함께

묻어 두었는데 그것 때문에 새 피라미드가 발견되었다 하면 도둑들이 먼저 들어가 중요한 것들을 싹 가져가 버리는 일도 아주 많았다. 그런데 피라미드만 만든다고 끝이 아니었다. 피라미드 앞에는 두 개의 신전을 만들고 호화로운 배도 한 척 만들어서 그 근처에 놓아두었다. 파라오의 영혼이 천국까지 타고 갈 배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다.

▶ **도굴꾼들을 속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

- 무덤안의 보물(보석, 화장품, 향수, 몸에 바르는 기름 등)들을 훔치는 사람들을 도굴꾼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피라미드 속으로 몰래 들어가서 값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빼내갔다. 파라오와 그 가족들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던 웅장한 피라미드는 도굴꾼들에게 ‘이 안에 보물이 있소!’ 라고 가르쳐 주는 노력을 하고 말았다. 그래서 무덤들을 속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을까?
- 바위 속을 깎아 비밀 방을 만들었고, 엉뚱한 곳으로 이어진 통로를 만들었다. 가짜 입구도 만들었다. 피라미드로 들어가는 진짜 입구는 무거운 바위 덩어리로 막아 아무도 들어갈 수 없도록 했다. 그리고 경비병들이 무덤을 밤낮으로 지켰다. 도굴꾼들은 잡히면 매를 맞거나 사형을 당하는 데도 도둑질은 끊이지 않았다. 이들의 욕심 때문에 고대 이집트의 수많은 위대한 보물들이 사라졌다.

▶ **도굴꾼들이 절대 훔쳐갈 수 없는 것들은?**

- 무덤의 벽에 그려진 그림들이었다. 이 그림들은 고대 이집트의 생활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준다. 무덤속의 그림에는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춤을 추는 모습 또는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집트 사람들은 내세에 가면 그림 속의 무용수들과 악사들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춤추고 노래하고 함께 놀아줄 것이라고 여겼다. 그림에는 죽은 사람의 모습도 그려져 있었다. 비록 그 사람이 죽을 때는 늙고 병들었더라도 그림에는 젊고 건강한 모습으로 그려졌다. 이집트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내세에 가면 그림에서처럼 젊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 거라고 믿었다.
- 벽 위에도 우선 눈금을 그리고 어디에 어떤 그림을 그릴지 계획을 꼼꼼하게 세운다. 얼굴은 반면상, 즉 옆을 보게 그려야 하지만 눈은 정면을 보고 있어야 한다. 다리는 옆으로 향하게 그려야 한다. 어깨는 양쪽이 다 보이게

그러야 좋다. 중요한 사람일수록 크게 그린다. 따라서 파라오를 제일 크게 그린다.

▶ 스�핑크스는 무엇인가? (부록 7)

- 스�핑크스의 기원은 이집트로, 사자의 몸에 매, 숫양, 또는 사람의 머리를 한 상상속의 괴물이다. 스�핑크스 조각상은 피라미드를 지켜 준다고 전해진다. 동물의 왕 사자에 대한 숭배에서 비롯된 것으로 시대에 따라 그 모습이나 성격이 달라진다. 스�핑크스는 “살아있는 형상”이라는 뜻이다.
- 이집트 기자에 있는 카프라 왕 피라미드의 스�핑크스가 가장 크고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자연 암석을 이용하여 통째로 조각한 것이다. 카프라 왕은 모래밭에 묻힌 단단한 바위에 사자의 몸에 자신의 모습을 닮은 해의 신 하르마치스의 머리를 조각하게 했다. 사자모양의 몸은 힘을 상징하고 파라오의 얼굴을 본 딴 머리부분은 지도력을 상징한다. 수천년이 흐르는 동안 사막의 모래가 불어와 쌓여 땅 속에 묻혀버렸다. 180여년 전 어느 고고학자가 발굴하여 원래의 모습을 찾게 되었다.

▶ 다음 스�핑크스의 수수께끼의 정답은 무엇일까?

- 아주 오랜 옛날 테베의 어느 돌산 부근에 무서운 괴물, 스�핑크스가 살고 있었다. 스�핑크스는 길목에 자리잡고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서 풀지 못하는 사람을 잡아먹었다.
- 아침에 네다리로, 낮에는 두다리로, 저녁에는 세 다리로 걷는 짐승은?
- 정답은 사람이다.

▶ 스�핑크스의 코는 왜 없을까?

-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원정할 때 피라미드 앞에 버티고 서 있는 스�핑크스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여 대포를 쏘아 스�핑크스의 코를 떨어뜨렸다고 전해지기도 하고, 아랍의 공격을 받아 훼손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현재 가장 유력한 설은 사막의 기후 환경 때문에 자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저절로 떨어진 것이라는 자연풍화설이다.
- 최근에는 자동차와 공장에서 내뿜는 오염 물질로 인해 스�핑크스 상당 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있어 이집트 정부는 그 중 일부를 복구하고 있다.

▶ 로제타 석은 무엇인가? (부록 8)

- 1799년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 때 나일 강 삼각주 인근에 있는 마을 로제타라는 곳에서 프랑스의 두 병사가 현무암에 글이 새겨진 돌을 발견하였다. 로제타 석은 같은 내용이 이집트 그림문자, 민중 문자, 그리스 문자가 동시에 새겨져 있었다.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위해 도전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어 이집트 문자는 오랫동안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다. 왜냐하면 상형문자가 뜻글자라는 선입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1822년 프랑스 학자 샹폴리옹이 이집트 문자 읽는 법을 알아냈다. 그는 로제타 석과 오벨리스크의 문자에서 “프톨레마이오스”와 “클레오파트라”라는 왕의 이름을 찾아내고 이 두 이름에 모두 나오는 기호에 착안하여 상형 문자를 그림이 아닌 발음 기호로 생각하였고, 그 결과 상형 문자를 읽는 원리를 찾아 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이집트 문자의 해독이 가능하게 되었다.
- 로제타 석에 새겨진 글 가운데 “요즘 젊은애들은 버르장머리가 없다”는 구절이 여러 번 나온다고 한다.

▶ 이집트의 문자는 어떤 것일까? (부록 9)

-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그림으로 뜻을 나타내는 그림 문자를 썼다. 그림문자는 다른 말로 상형 문자라고 한다. 본래 물체를 그려서 뜻을 표시하는데 그림 글자 수백개를 썼다. 이 글자는 소리를 나타내는 데도 썼는데, 그 가운데 자주 쓰이는 것이 20여개이다. 이집트 사람들은 신이 이 글자를 가르쳐 주었다고 믿어서 성스러운 글자(신성 문자)라고 불렀다. 대부분 이집트 사람들은 글자 읽는 법을 잘 몰랐다. 글자 수가 700개도 넘었기 때문이다. 대신에 서기들에게 돈을 주고 읽고 쓰는 일을 맡겼다. 서기는 이집트에서 중요한 직책이었는데, 수많은 서기들에 의해 돌, 진흙, 파피루스 등에 당시의 모습들이 기록되었다.

▶ 페이퍼의 어원 파피루스는 무엇인가?

- 나일 강변에서 널리 자라는 식물로 여러 용도로 사용되었다. 오두막을 지을 때도 파피루스를 사용했다. 나일 강 바닥의 흙에 잘게 썬 파피루스를 이겨 흙벽돌을 만들어 벽을 만들거나 벽을 올리거나 지붕을 덮는 데 썼다. 뿐만 아니라 파피루스 줄기로는 끈, 광주리, 돛자리, 고기잡이배를 만들었고 식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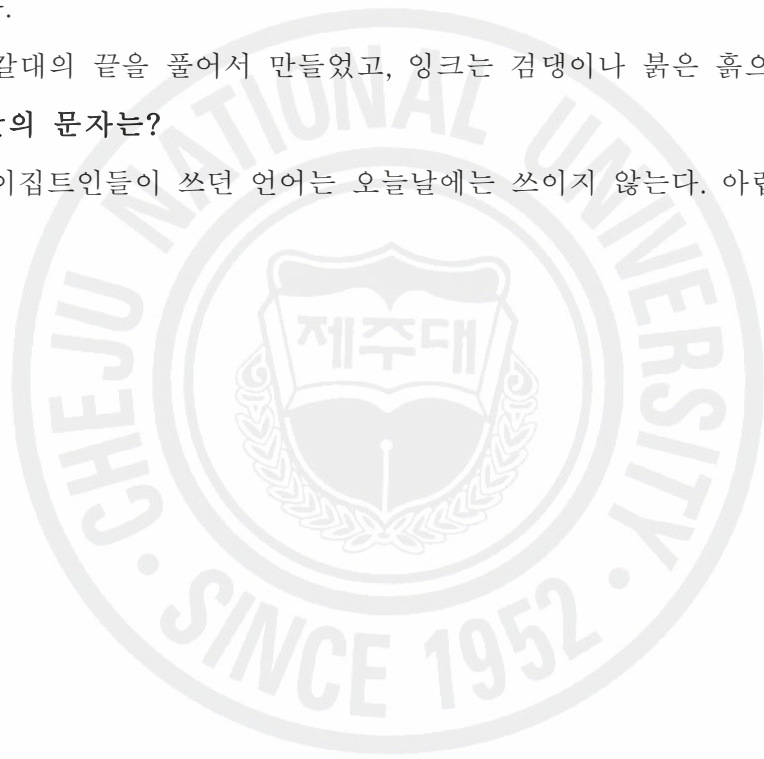
으로도 사용되었다.

- 파피루스 줄기에서 벗겨낸 껍질을 여러겹 포개어 놓고 누르고 두드려서 종이를 만들었다. 그래서 종이(paper)의 어원이 되었다. 이집트의 중요한 수출품이었다. 파피루스는 만드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으므로 값이 매우 비싸서 급하게 쓸 것이 있으면 파피루스 대신 깨진 항아리 조각에 쓰곤 했다. 파피루스는 값이 비싸고 쉽게 찢어지는 단점이 있어서 중국에서 종이가 전해지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그러나 건조한 기후에서 수천년 동안 보존된 파피루스 문서 덕분에 고대 이집트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 붓은 갈대의 끝을 풀어서 만들었고, 잉크는 검댕이나 붉은 흙으로 썼다.

▶ **오늘날의 문자는?**

- 고대 이집트인들이 쓰던 언어는 오늘날에는 쓰이지 않는다. 아랍어를 쓴다.



(3) 2차시 탐구 활동지 1

♀ 탐구 활동지 1 ♀

👁️ 다음은 죽은 후의 세계에 대한 이집트인들의 생각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글을 읽고 활동을 해 보자. 👁️

다음은 죽은 후의 세계에 대한 이집트인들의 생각을 보여 주는 내용이다. 글을 읽고, 활동을 해 보자.

이집트 인들은 사람이 죽은 뒤에도 이 세상의 생활이 계속되며, 혼이 육체로 되돌아오면 다시 살아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그리하여 사람이 죽으면 미라로 만들어 온전한 육체를 보존하였다. 특히, 왕이 죽으면 화려한 미라로 만들어 거대한 피라미드에서 장사지냈다. 유명한 쿠푸 왕의 피라미드는 높이 147m, 밑변의 가로, 세로가 각각 230m로 평균 2.5톤짜리의 돌 230만 개를 사용하여 만들었다. 채석장에서 캐낸 돌은 배에 실려 나일 강을 따라 운반된 후, 대형 썰매를 이용하여 육로로 옮겨졌다. 피라미드를 완성하기 위해 약 10만 명이 20년간 일을 하였다.

👁️ 투탕카멘 왕의 미라를 보관하였던 관



1. 피라미드를 만드는데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 동원되었을까?

2. 피라미드와 같이 엄청난 공사가 가능하였던 배경은 무엇인지 설명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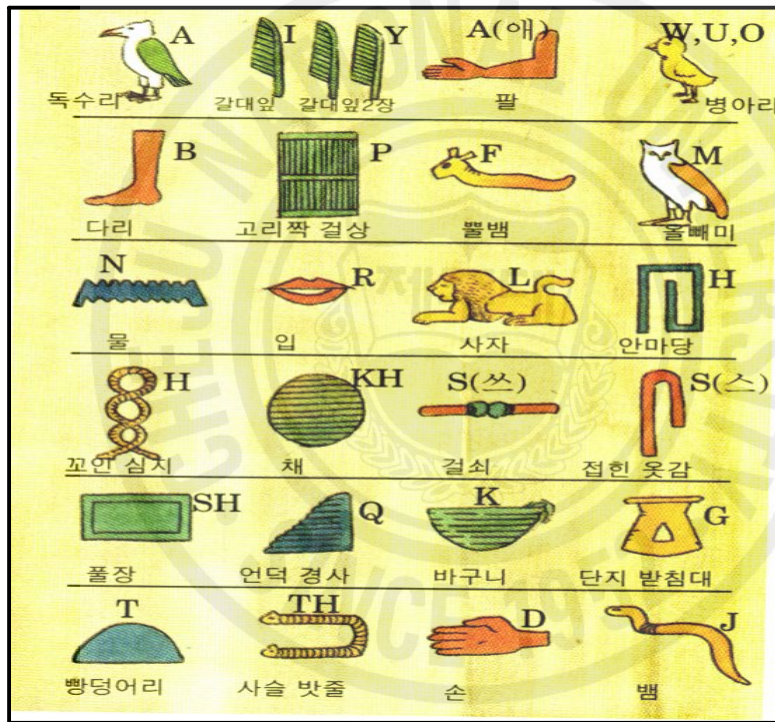
3. 대피라미드가 왜 고대 세계의 불가사의들 중 하나로 간주되는지 그 이유를 3가지만 열거하시오.

4. 지금부터 자신이 피라미드 건설에 동원된 고대 이집트인이라면 21세기 탐험가가 피라미드 내부에서 발견하게 될 편지를 써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지 생각해 보고 쓰세요.

(4) 2차시 탐구 활동지 2

♀ 탐구 활동지 2 ♀

👁 이집트 상형 문자 표를 보고 다음의 활동을 해보자. 👁



1. 자기 이름의 영문자를 상형문자로 써보자.
2. 당신이 이집트인이라면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 라는 내용을 상형 문자로 표현해보세요.

3) 3차시 학습 지도안

3차시 학습 주제는 ‘신들의 나라 - 이집트(정신문화)’로 설계하였다.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부록11)를 보면서 미라를 만들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이집트인의 내세적인 세계관을 이해한다. 미라와 함께 관속에 넣어두는 사자의 서(부록 12)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아울러 이집트의 신(부록 13)에 대해서 파악한다. 이집트의 신을 직접 창조하여 적절한 기능을 부여하는 활동을 해보게 한다. 또한 미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카드놀이(부록 14)를 통하여 미라 만드는 과정을 이해한다.

3차시는 교수·학습 과정안, 수업 전개안, 탐구 활동지 1, 탐구 활동지 2 순으로 제시하였다. 그림 자료와 미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카드 놀이는 부록에 수록하였다.

(1) 3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3차시 교수·학습 과정안은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3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 교수·학습 과정안 | | | | | |
|-----------|---|----------------------------------|-------------------------|----|--------|
| 교과서 | 금성출판사 | 대상 | 중학교 1학년 | 차시 | 3/3 |
| 대단원 | 9. 인류의 기원과 고대 문명의 형성 | | | | |
| 중단원 | 9-3. 오리엔트의 고대 문명 2. 이집트 문명 | | | | |
| 주제 | 신들의 나라 이집트 - 정신 문화 | | | | |
| 학습 목표 | 1. 이집트인들이 미라를 만드는 이유를 알 수 있다. 2. 이집트의 종교를 이해할 수 있다. 3. 자신만의 신을 상상하여 만들 수 있다. | | | | |
| 학습 자료 | 그림자료(9-11), 탐구 활동지(1-2), 참고 자료 | | | | |
| 수업 형태 | ICT 활용 문답식 수업 | | | | |
| 참고 사이트 | http://www.civilization.ca/.members/civiliz/egypt/image www.visitegypt.co.kr | | | | |
| 학습 단계 | 학습내용 | 교수·학습 활동 | | 자료 | 시간 (분) |
| | | 교수 활동 | 학생 활동 | | |
| 도입 | 생각열기 | ▶이집트 인들은 왜 미라를 만들까? ▶학습목표를 확인 | ▷자유롭게 대답한다. ▷함께 읽는다. | | 5' |

| | | | | |
|----|--|--|---|-----|
| 전개 | <p>▲미라를 만든 이유</p> <p>▶미라를 만들게 된 이유를 설명한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왜 시신을 미라로 만들었을까요? -미라를 만들게 된 것은 기후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가장 유명한 미라는? -죽은 뒤에 시신을 미라로 만들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미라는 어떻게 만들까? -미라는 왜 뇌가 없을까요? -미라를 왜 봉대로 칭칭 감았을까요?</p> <p>▲사자의 서</p> <p>▶“사자의 서”의 의미를 설명한다. -미라와 함께 묻어야 할 책이 있었는데 무엇일까?</p> <p>▲이집트의 신</p> <p>▶이집트 신들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집트 사람들은 누가 지켜주지? -신들을 어디에 모시는가? -유명한 신전은 무엇인가? ▶미라와 피라미드가 우리에게 준 선물은 무엇일까?</p> | <p>▷이집트인들의 내세적인 세계관을 이해한다.</p> <p>▷미라 제작 과정에서 의학 지식이 발달하였음을 이해할 수 있다.</p> <p>▷사자의 서의 의미를 이해한다.</p> <p>▷이집트 신들에 대해서 이해한다.</p> | <p>◆그림자료9</p> <p>◆그림자료 10</p> <p>◆그림자료 11</p> | 30' |
| 정리 | <p>▶탐구 활동지 1 을 제시한다. -이집트인들은 죽은 후에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였는가? -이집트인들은 내세를 위하여 어떤 것들을 준비하였는가? -죽어서 저승에 간다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사자의 서의 내용에 나오는 신들을 알아보자</p> <p>▶탐구 활동지를 2를 통해 신들의 이름을 적고, 자신만의 신들을 만들어보자.</p> <p>▶참고자료를 제시하며 미라 만드는 과정에 관한 카드 놀이를 소개한다.</p> | <p>▷탐구 활동지 1 을 풀면서 정리한다.</p> <p>▷탐구 활동지 2를 완성한다</p> <p>▷카드 놀이를 통한 미라 만드는 과정을 이해한다.</p> | <p>◆탐구 활동지1</p> <p>◆탐구 활동지2</p> <p>◆참고 자료</p> | 10' |

(2) 3차시 수업 전개안

♀ 수업 전개안 ♀

▶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왜 시신을 미라로 만들었을까요?

- 미라는 수천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채 있도록 바짝 말린 시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집트인들은 사후 세계에서 영혼은 죽지 않으며 심판을 받는다고 믿었다. 이러한 믿음 때문에 시체를 미라로 만들어 사자의 서와 함께 무덤 속에 묻었다. 죽은 사람이 사후 세계에서 살아가려면 몸이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몸의 한 군데도 썩어 없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특히 파라오를 미라로 만드는 일은 아주 중요했다. 왕이 죽은 뒤 태양신을 만나러 간다고 믿었다. 파라오를 살아있는 신이라고 믿어서 파라오와 사후 세계를 연결하고 있는 마법의 끈이 끊어진다면 세상은 어둠과 무질서 속으로 빠져든다고 믿었다.

▶ 미라를 만들게 된 것은 기후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 이집트 기후는 습기가 전혀 없고 태양열이 무척 강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나일 강 주변의 땅에는 농사를 지어야 했기 때문에 시신을 가까운 사막에다 묻었다. 그런데 사막의 뜨거운 모래가 시신을 아주 빠르게 말려 버렸다. 그 덕분에 시신은 썩지 않고 미라가 되었던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렇게 사막에서 우연히 만들어진 미라를 연구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세를 위해 시신을 보존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
- 미라는 땅 속에 묻히거나 건조 보존되어 만들어진 자연적인 미라와 인위적으로 만든 미라로 나눌 수 있다. 시베리아·유럽·남미의 고원 지대에서 발견되는 자연적인 미라들은 주로 추운 지역에서 발견되는 냉동된 상태로 보존된 것들이다. 이밖에도 탄광이나 늪지대 등에서 시신이 묻힌 뒤 산소가 빠져나가 썩지 않고 보존된 경우와 사막 지대의 건조함 때문에 급속한 탈수 현상이 일어나 자연적인 미라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 가장 유명한 미라는? (부록 11)

- 황금 마스크로 유명한 투탕카멘이다. 가면은 보석이 박힌 순금으로 되어 있고

무게가 11kg이나 나간다. 상이집트의 옛서울 테베 근처 왕가의 계곡에서 발견되었다.

- 고대 이집트의 왕 중에서 그 유물들이 카이로 박물관에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 유일한 왕이다. 투탕카멘은 어려서 파라오가 되었고 9세에 결혼하여 20세가 될 때까지 10년 가량 통치를 했고 20세에 죽었다.

▶ **죽은 뒤에 시신을 미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 부자들뿐이다. 시신을 미라로 만드는 일에는 워낙 많은 돈이 들었기 때문이다.

▶ **미라는 어떻게 만들까?**

1. 미라의 신인 아누비스의 가면을 쓴 사제가 몸속에서 뇌와 내장을 끄집어낸다.
2. 뇌를 멀리 치운다.
3. 꺼낸 내장은 “카노포스 단지”라고 불리는 특별한 단지에 15일 동안 담는다.
4. 시신이 썩지 않도록 40일 동안 몸 전체를 마른 소금으로 덮는다.
5. 소금 더미 안에서 시신을 꺼내 붓대로 감는다.
6. 미라를 보호하기 위해 붓대위나 안에 마법의 힘을 가진 부적들을 넣는다.
 - 15일 걸리며, 부적들은 스카라베(다시 태어남), 호루스의 눈(보호), 앙크(생명의 숨결-파라오나 왕비밖에 쓸수 없다) 등이 있다.
7. 영혼이 되돌아왔을때 자기 몸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얼굴에다 아름다운 미라 가면을 씌운다.
8. 미라를 아름다운 관에 담는다. 호루스의 눈을 미라 상자에다 그렸는데 이 눈을 통해 미라가 관 바깥을 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

▶ **미라는 왜 뇌가 없을까요?**

- 고대 이집트 인들은 심장이야말로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믿었다. 뇌는 아무 쓸모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미라를 만들 때 뇌를 없애버렸다. 놀랍게도 코를 통해 몸밖으로 빼냈다.

▶ **미라를 왜 붓대로 칭칭 감았을까요?**

- 시체를 붓대로 칭칭 감았던 것은 모양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이다. 시체의 내장을 없앤 뒤 소다석이라는 소금기 있는 물질을 써서 40일 동안 말린다. 그 뒤 시체를 다시 깨끗이 씻고 향유를 바른 다음 붓대로 단단히 묶는 것이

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 대부분은 평생 아마포라는 옷감을 모았어요. 미라를 감을 붕대로 쓰이기 위해서이다. 이집트 사원에 세워져 있는 조각상들은 매일 새 붕대를 감아줬다. 그래서 썼던 붕대는 매일 버렸다. 그곳에서 한 번 썼던 붕대를 살 수 있다.

▶ **미라와 함께 묻어야 할 책이 있었는데 무엇일까? (부록 12)**

-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내세에 이르기 위해서는 지하세계를 지나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하 세계를 지나고 여행은 아주 위험한 것이었다. 그래서 죽은 이들이 안전하게 다음 세상에 도착하도록 기도문, 여러 가지 사건에 부딪칠 때 외우는 마법의 주문이나 신들에 대한 서약과 생전의 선행에 대하여 적혀 있다. 이것을 죽은 자의 책, 즉 사자의 서(死者의 書)라고 불린다. 사실 사자의 서는 요즘의 책처럼 생긴 것이 아니라 파피루스로 된 두루마리에다 주문을 쓰고 지도를 그려 놓은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사자의 서에 나온 대로 따라하면 신의 시험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고 여겼다.
- 이집트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죽음의 세계를 다스리는 신인 오시리스에게 가서 재판을 받는데, 그 사람이 살아서 계율을 잘 지키고 착한 행동을 했으면 죽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믿었다. 사자의 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죽은 자의 심판이다. 죽은 자를 심판하는 재판관 **오시리스**(사후 세계의 왕,^①)는 배심원을 거느리고 검사인 **토티신**(지혜의 신,^②) 서기관인 **호투스신**(원숭이의 형상,^③), 안내자이자 저울을 다는 **아누비스 신**(재칼의 형상,^④)과 죽은 이가 죄를 범했다고 판명될 경우 벌을 주는 **아뮤트 신**(늑대의 머리, 사자의 갈기와 하마의 다리를 하고 있음,^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자가 내세로 들어갈 수 있는가를 재판합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저승신 아누비스가 죽은 사람의 심장을 저울질해서 그의 죄를 정확히 밝혀 낸다. 저울의 한쪽 접시에 죽은 자의 심장(^⑥)을 얹고 반대편 접시에 깃털 하나(^⑦)를 올려 놓았을 때 죽은 사람의 심장의 무게가 깃털보다 가벼우면 오시리스의 왕국에 들어가 영원한 삶을 보장 받고, 만약 깃털보다 무거우면 죽은 사람의 영혼은 갈기갈기 찢겨 늑대 모습을 한 아뮤트 신에게 잡아 먹히게 된다.
- 따라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죽으면 오시리스에게 죄를 고백하거나 위협을 피

해 영혼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기도문을 적은 사자의 서를 만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는 신을 모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음모를 꾸미지 않았습니다. 저는 강물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빼앗은 일도 없습니다. 저는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저울을 속이지도 않았습니다”

▶ 이집트 사람들은 누가 지켜주지? (부록 13)

- 신들의 힘으로 세계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한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파라오를 신으로 섬겼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2천 명도 넘음)과 여신들을 섬겼어요, 신들은 한 지역에서만 섬겨지는 신들도 있고, 같은 신이 지역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어떤 신들은 사람과 같은 모습이고 어떤 신들은 동물의 모습을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반은 인간이고 반은 동물의 모습을 하고 있다. 자, 그럼 이집트 사람들은 어떤 신들을 믿었는지 특히 중요한 신들을 알아보까요?

1. 누트 - 하늘의 여신

- 하늘의 여신 누트는 땅의 신인 게브와 만나기 위해 날씬하고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녀는 머리는 동쪽에, 다리는 서쪽에 걸치고 기다란 몸을 활처럼 구부려 땅에 닿으려고 애쓰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슈와 테프트의 딸이고, 게브의 누이도 되고 아내도 된다. 게브와 결혼해 다섯 신을 낳게 됩니다.

2. 게브 - 땅의 신

- 땅의 신 게브는 세상 모든 곡식이 자라고 열리는 일을 돌보는 신으로, 여동생 누트와 결혼하게 됩니다. 웃을 입지 않고 있는 아름다운 남자의 모습이고 하늘 아래에서 땅처럼 길게 드러누워 있다. 그의 수호동물은 기러기이다.

3. 라 - 태양신

- 라는 태양신이다. 사람의 몸에 매의 머리를 한 모습이다. 라는 세상을 만들었다. 이집트 사람들은 라가 황금 배를 타고서 매일 하늘을 가로 질러 날아다니는다고 생각했다. 해 질 무렵이 되면 라는 배를 몰고 지하 세계로 간다. 그랬다가 해가 뜰 때 지하 세계에서 나와 배를 타고 또 다시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다닌다.

4. 오시리스 - 죽음과 부활의 신

- 케브와 누트의 아들이고, 이시스의 오빠도 되고 남편도 되면서 아누비스와 호루스의 아버지이다. 첫 번째 파라오이면서 동생인 세트에게 배신당하고 살해당한다. 이시스가 그의 몸을 다시 찾아내고, 아누비스가 그를 미라로 만든다. 더 이상 살아있는 자들을 다스릴 수 없게 되자 그는 죽음의 세계에서 다시 태어나 그곳의 주인이 되고 심판관도 된다. 모두가 사랑하는 신이고, 저승 세계에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나타낸다. 오시리스는 언제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내는데 피부는 검은색 아니면 녹색으로 그려지는데 검은 색은 나일강 유역의 기름진 흙을 상징하고, 녹색은 성장을 나타낸다.

5. 이시스 - 어머니이자 오시리스의 아내

- 케브와 누트의 딸이면서 오시리스의 누이이자 아내인 여신이다. 그녀의 이름을 나타내는 상형문자는 그녀가 머리에 쓰고 있는 왕관을 뜻한다. 그녀는 잃어버린 오시리스의 몸을 찾아내 결국 아들인 호루스를 태어나게 한다.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마술사인 그녀는 아무도 모르는 레의 진짜 이름을 아는 유일한 존재이다. 아주 사랑스럽게 생긴 그녀는 자기의 막강한 힘으로 농사를 짓는 일과 가정 그리고 생명의 탄생을 보호해 준다. 이시스는 계단 모양의 왕관을 머리에 쓰고 있는데 가끔은 암소의 뿔과 달의 원반으로 장식한 모양을 하기도 했다.

6. 아누비스 - 장례의 신이자 미라를 만드는 사람들의 신

- 오시리스와 네프티스의 아들로 자갈의 머리를 한 남자의 모습으로 시체에 향료를 뿌리고 미라를 만드는 일에 관여하는 신이다. 죽은 사람들이 오는 지하 세계에서 심장의 무게 달기 의식을 지켜 보며 정의의 저울을 검사하는 역할을 한다. 파라오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7. 세트 - 혼돈과 혼란의 신

- 케브와 누트의 아들이면서 천둥과 사막, 싸움의 신이기도 하고, 태양의 수호자이기도 하다. 오시리스를 죽이고 나서 호루스와 싸웠고 나중에는 태양의 배를 타고 모험을 떠난다. 귀가 칼로 단번에 베인 듯이 끝이 평평하게 생겼고 주둥이가 길게 나왔거나 아니면 얼굴이 길게 생겼다. 몸은 인간이지만 끝이 두 갈래로 갈라진 꼬리가 있다.

8. 호루스 - 하늘의 신이자 파라오의 보호자

- 오시리스와 이시스 사이에 태어난 아들로, 이집트 사람들에게 강력한 왕권을 알려 주는 수호신이다. 이집트 사람들은 파라오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호루스라고 믿었다. 호루스는 한 마리의 매나 매의 머리를 가진 신으로 그려졌는데, 이것은 태양신의 진짜 후계자라는 뜻이다. 사람들은 그를 어머니인 이시스의 무릎위에 앉아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지평선의 호루스라고 부르면서 하늘의 신 모습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의 두 눈 중 하나는 달이 되고 하나는 해가 된다. 하토르가 그의 아내이다.

9. 하토르 - 사랑과 미의 여신

- 기쁨과 사랑의 여신인 그녀는 동, 서, 남, 북 네 방위의 주인이다. 그녀의 머리 위에는 뿔이 두 개 있고, 그 사이에는 금빛 원판이 있다. 그녀는 사자의 모습이 되기도 하고 고양이나 코브라 또는 여자의 모습으로 변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해마다 축제를 열어 그녀가 호루스와 결혼한 것을 기념한다.

10. 아몬 - 창조신이자 테베의 신

- 테베의 숨어있는 신이다. 그는 보통 커다란 깃털 두 개가 꼳꼳이 꼳혀 있는 관을 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더러는 숫양의 모습을 하고 있기도 하다. 물의 신인 그는 나중에 세계를 창조하는 태양신이 된다.

11. 토트 - 문자와 지식의 신

- 진정한 우주의 창조자로 불리는 지혜의 신이다. 토트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창조하고 시간을 기록하고 측정하는 서기관의 역할을 해낸다. 따오기 또는 원숭이의 모습으로 잘 변신하는 데 이상하게 생긴 이집트 문자도 다 토트가 발명해 낸 것이다. 그는 신들이 찾아가서 의논하는 신이고, 오시리스가 죽은 자들을 심판할 때 바로 그 옆에 있는 신이다.

▶ 신들을 어디에 모시는가?

-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특히 중요한 신들을 위한 신전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었다. 신전 안에는 신성한 조각상들을 모셨다. 그리고 신전의 제사장들이 이 조각상의 시중을 들었다.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히는 것은 물론이고 음식까지 바쳤다. 보통 사람들은 신전 안에 있는 신성한 조각상들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다. 사람들은 신전에 가서 기도를 올리고 신에게 바치는 제물을 신

전 밖에 두고 돌아왔다. 또 자기가 특별히 좋아하는 신의 조각상을 집에다 모셔두고 기도를 올렸다.

▶ **유명한 신전은 무엇인가?**

- 아부심벨 신전이다. 람세스 2세의 치적을 칭송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대한 두 개의 암굴 신전이다. 람세스 2세는 세계 제국의 군주, 난폭한 정복자, 스스로 신이 되고 싶어했던 왕이었다. 돌산의 한쪽 절벽을 깎아 만든 아부심벨 신전의 앞면은 파라오의 모습을 한 4개의 거대한 조각으로 꾸며져 있는데, 각 조각은 높이가 20미터, 귀에서 귀까지의 거리가 4미터, 입술의 두께가 1미터나 되는 엄청난 크기이다. 이 신전은 1960년대 아스완 댐의 건설로 수몰 위기에 처했었는데, 유네스코에서 이 신전을 안전하게 60m 높은 곳으로 이전시켰다.

▶ **미라와 피라미드가 우리에게 준 선물은 무엇일까?**

- 지식이라는 선물이다. 미라의 무덤에서 발견된 글자, 그림 그리고 갖가지 보물들은 우리에게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으며 어떻게 일하고 또 어떻게 놀았는지를 가르쳐준다. 이러한 지식 덕분에 아주 먼 옛날의 일들이 수천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아주 생생하게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믿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믿음이 정말로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3) 3차시 탐구 활동지 1

♀ 탐구활동지 1 ♀

👁️ 다음 내용을 보고 활동을 해보자. 👁️

영혼의 불멸을 믿은 이집트인

👁️ 이집트인들은 영혼의 존재를 믿고, 내세를 위해 시신을 잘 보관하려고 하였다.



≧ **'사자의 서'** '사자의 서'는 사자(죽은 사람)가 사 후 세계에서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기원하는 주문을 삽화와 함께 파피루스 두루마리에 적은 것이다. 사진은 죽은 사람이 오시리스 신(사후 세계의 왕) 앞에서 심판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 준다.

≧ **«미라를 담은 관**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 '사자의 서'와 함께 무덤 속에 안치하였다.

1. 이집트인들은 죽은 후에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였는가?

2. 이집트인들은 내세를 위하여 어떤 것들을 준비하였는가 ?

3. 죽어서 저승에 간다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자기 생각을 말해보자.

4.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저승에 가면 다음과 같이 심판을 받는다고 믿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며 다음 괄호 안에 맞는 신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죽은 사람은 저승으로 가는 여행을 마치고 신들의 땅에 다다른다. 거기서 주문을 외우며 관문을 통과하면 죽은 자는 () 신에 이끌려 저승의 주인인 () 신이 다스리는 곳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된다.

죽은 자는 이승에서 죄를 짓지 않았음을 저승의 신들에게 고백한다. 그런 다음 죽은 자의 심장이 진실과 정의의 여신 마아트(Maat)의 저울에 놓이고 반대편에는 마아트 여신의 깃털, 즉 진실과 정의의 깃털이 놓인다. () 신이 저울을 재고 기록의 신 ()가 이를 기록한다. 만일 심장의 무게가 깃털보다 가벼우면 죽은 자는 무죄가 밝혀지고 영생을 보장받는다. 그렇지 못하면 늑대 모습을 하고 옆에서 기다리고 있던 ()가 심장을 삼켜버린다.

무죄가 밝혀지고 영생을 보장받는 자는 영원한 세상을 누리기 위하여 () 신에게 이끌려 () 신에게 안내된다.

(4) 3차시 탐구 활동지 2

♀ 탐구활동지 2 ♀

1. 다음 신들의 모습을 보고 그 밑에 신들의 이름을 적어보자.





2. 고대 이집트인들의 신앙을 토대로 자신의 신을 한 번 그려보세요. 그 신은 반은 동물이고 반은 인간이어야 하며, 당시의 옷차림을 하여야 합니다. 창조한 신에게 적절한 이름과 기능을 부여해 보시오.

3. 통합형 수업 모형의 현장 적용

본 연구자는 2년 동안 3학년 수업을 하다보니 설계한 학습 지도안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제 수업을 해 볼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그래서 수업 모형을 개발하여 10명의 중학교 사회과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한 피어 디브리핑 방법에 의해 통합의 가능성과 학습 효과를 탐색하였다.

4. 통합형 수업 모형의 평가

설문 조사의 항목은 9개의 질문지(부록15)로 되어 있으나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이집트 학습 지도안에 대한 질문의 결과에 대해서만 살펴보고자 한다.

설문 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7차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 소개된 이집트 관련 내용은 통합의 측면에서 볼 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본 연구자가 작성한 이집트 학습지도안은 어느 정도 통합이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셋째, “본 연구자가 작성한 이집트 학습 지도안으로 수업하면 통합적 사고력 함양과 문제해결 능력의 신장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넷째, “이집트 학습 지도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간단히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째, “이집트 학습 지도안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간단히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문 조사의 결과의 내용이다.

첫 번째 질문에 응답자 중 6명이 “형식만 통합되고 내용은 각 영역별로 분리되어 있다”고 대답하였고, 4명은 “형식과 내용 양 측면 모두 통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대답하였다. 즉 교사들은 현행 교과서가 통합 교과서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질문에 응답자 중 9명이 “교과서보다는 통합의 정도가 높아졌다” 고 대답하였고, 1명은 “보통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즉 이집트 학습 지도안이 교과서보다는 통합을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질문은 응답자 중 8명이 “효과가 다소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였고, 2명은 “효과가 클 것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즉 지도안이 통합적 사고력 함양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질문은 “기존 교과서에 제시되지 않은 다양한 자료들이 풍부하게 제시되어 이집트 문화에 대한 탐구력을 높였다”, “역사를 인식하는 사고를 높였다”, “소홀히 여기고 지나치는 부분을 자세히 다루어 줄 수 있다”, “이집트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의 나열이 아닌 현재의 이집트가 있기 위한 여러 요소와 ‘왜’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고 그 과정을 재미있는 활동을 통해 학생 스스로 터득하게 하고 있다”, “이집트에서 고대 문명이 나타나게 된 여러 가지 이유를 기후와 관련하여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기존 교과서 중심 수업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다양한 학습과 경험 - 상형 문자로 이름 써 보기, 피라미드 만들기, 나일 강을 찬양하는 시, 이집트의 가옥 구조, 미라 제작 카드 놀이 등 - 을 할 수 있게 짜여져 있다” 라고 대답하였다.

다섯 번째 질문은 “이집트 부분만 3차시로 다룬다는 건 현재 교육과정 운영상 현실성이 없다”, “서남 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 단원과 연구자의 연구 지역을 확대하여 오리엔트의 고대 문명 단원을 통합했다면 시수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아스완 하이 댐 건설로 인한 기후 변화와 국가간 분쟁, 댐의 장점과 단점, 우리나라 수자원 이용의 특징과 결부시켜도 좋을 것 같다”, “통합을 추구하고 있지만 1차시를 제외하고는 역사 영역으로 한정되어 있게 보인다” 라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즉 2차시와 3차시 부분을 통합의 정도를 강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하겠고 교육과정상 2차시와 3차시를 한 차시로 줄여서 짜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IV.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변천을 살펴볼 때 1980년대 이후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이 종래의 분과형에서 통합형으로 개편,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통합을 지향하고 있으나 지리, 역사, 일반사회 영역이 아무런 유기적 연계성을 가지지 못한 채 대단원이나 중단원별로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다. 구체적인 학습 내용 구성에 있어서는 통합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통합이 미흡한 실정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불완전한 교과서를 가지고 불완전한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사회과의 학습 효율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 인식 아래 본 연구는 현행 제7차 교육과정과 사회 교과서를 대상으로 통합의 실태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집트 문명을 사례로 통합형 수업 모형을 개발하여 이를 설문조사를 통한 피어 디브리핑 방법에 의해 구체적인 교수·학습 수준에서 통합의 가능성과 학습효과를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내용이 구성되었다. 연구방법으로는 선행된 연구의 문헌과 중학교 10종의 1학년 사회 교과서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살펴보았다.

II장에서는 통합교육과정의 이론적 배경인 통합교육과정의 개념, 필요성, 유형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리고 사회과 통합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의 통합적 접근은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았고 교육과정과 교과서 상에 나타난 통합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III장에서는 현행 교육과정에서 형식적인 통합을 탈피하여 교수·학습 수준에서 통합이 가능한 내용을 재구성하여 이집트 문명을 사례로 통합형 수업 모형을 설계함으로써 통합의 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통합형 수업 모형을 동료 교사들의 설문 조사를 통하여 통합의 가능성과 학습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게 되었다.

첫째, 교육과정 차원의 통합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현재로서는 교수·학습 수준에서 통합밖에 없다. 교수·학습 수준에서의 통합은 가능성과 효율성을 아울러 갖고 있다.

둘째, 통합적 교육 과정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과서를 재구성할 수 있는 교사의 능력이다. 통합적 교수·학습 모형에서는 각각 분과 전공을 갖고 있는 교사 혼자 지식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작업은 대단히 고난도의 작업이다. 지리, 역사, 일반사회처럼 전공이 다른 교사들의 분업적 원리에 의한 상호 연대가 중요하다.¹⁷⁾ 교과 모임이나 교사 협의회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협동 작업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이집트 문명에 한정하여 통합형 수업 모형을 설계하였다. 통합이 가능한 단원은 통합형 수업 모형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리 영역 중심의 역사 영역 통합 주제로는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에 대한 이해』, 『뒤바뀐 원산지와 주산지(커피, 카카오, 고무)』, 『불타는 발칸의 화약고(유고 내전)』, 『불타는 아마존(아마존의 환경 개발)』, 『유럽 속의 인종의 섬(헝가리와 핀란드)』, 『아메리카 이민을 촉진한 감자, 아메리카를 처음 발견한 유럽인(바이킹)』, 『하천이 없는 호수(호남평야와 옥구 저수지)』, 『콜럼버스가 서쪽으로 간 까닭은?』 등을 들 수 있다.¹⁸⁾

넷째, 본 연구는 교수·학습 수준에서 문답법 위주로 통합을 시도하면서 그림 자료를 사용하였다. 문답법뿐만 아니라 역할 놀이, 협동 학습 등 다양한 수업 방법과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수업 자료를 활용할 필요도 있다.

끝으로 제언을 한다면, 현재의 형식적인 통합을 탈피하여 통합이 가능하고 바람직한 단원은 내용면에서 확실하게 통합하고, 나머지는 분리하여 분과형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17) 안미원, 2001, 사회과 통합교육과정 수업 모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40.

18) 최석진·최병모, 2001, 통합교과로서의 사회과 운영 방안, 한국교원대학교 통합사회 교육과정 연구 위원회, 135-145.

참 고 문 헌

- 강덕치, 2004, 이집트 자전거 여행기, 현암사.
- 강영숙·한명숙, 2007, 노빈슨, 피라미드의 비밀을 풀어라, 뜨인돌.
- 곰돌이 co, 2005, 이집트에서 보물찾기, 아이세움.
- 교육부, 1999, 제7차 교육과정 해설서, 대한교과서.
- 권오정, 1994, “고등학교 사회과 통합교육과정 개발의 전제 조건,” 고등학교 사회과 통합교육과정 내용 구성 연구, 교육부, 32-51.
- 김경순, 2000, 쟁점중심 통합 사회과 수업 모형 탐색,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재복, 2000, 통합교육과정의 이론과 적용: 통합교과의 지도, 교육과학사.
- 김종민, 2007, 통째로 세계사, 휘슬러.
- 김주환 외 9명, 2003, 중학교 사회 1, 중앙교육진흥연구소.
- 김희목 외 7명, 2003, 중학교 사회 1, 동화사.
- 노희방, 1997,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 지리 영역 개발 보고 : 제7차 지리 교육과정 개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 에 대한 의견,” 지리·환경 교육, 5(2), 143-150.
- 데이비드 스튜어트, 2004, 너도 한번 이집트의 미라가 되어볼래?, 인디아이.
- 류승렬, 2000, “통합사회과의 문제와 역사교육의 내용 구성,” 「사회과 교육의 문제와 내용 범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사회과교육과정 기초연구 전문가 초청세미나 자료집 ORM 2000-8.
- 류재명, 1997, “제7차 지리과 교육과정의 체제 개발 방안,” 대한지리학회지, 65, 113-124.
- _____, 2000, “사회과 통합교육과정 : 지리, 역사, 일반사회와의 관계,” 「사회과 교육의 문제와 내용 범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사회과 교육과정 기초연구 전문가 초청 세미나 자료집 ORM 2000-8.
- 린다 베일리, 2002, 고대 이집트 대모험, 작은 책방.

- 메리디스 후퍼, 2003, 피라미드는 누가 만들었을까?, 아이세움.
- 메리 폼 어즈번, 2002, 마법의 시간 여행 3, 비룡소.
- _____, 2004, 이집트의 피라미드, 비룡소.
- 민윤, 1992, 사회과 역사와 지리 내용의 간학문적인 통합,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선미, 2003, “사회 내용의 통합 수준과 구성방안,”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편, 사회과 교육, 42(2).
- 박성혁, 2000, “일반사회 교육의 내용과 범위,” 「사회과 교육의 문제와 내용 범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사회과 교육과정 기초연구 전문가 초청 세미나 자료집 ORM 2000-8.
- 박영한 외 10명, 2003, 중학교 사회 1, 성지문화사.
- 변정실, 2002, 제7차 교육과정 중등 사회과 통합의 실제 : 교과서 및 교사의 인식 분석을 통해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비비안 퀸, 2007, 고대 이집트 어린이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주니어 김영사.
- 삼(sam), 2006, 이집트 신화 I, 교학사.
- 손명철, 1999,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통합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하나의 대안,” 지리 · 환경교육, 7(1), 51-65.
- 안미원, 2001, 사회과 통합교육과정 수업모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경섭 외 11명, 2003, 중학교 사회 1, 디딤돌.
- 오인석 외 12명, 2003, 중학교 사회 1, 두산.
- 유영소, 2007, 이집트 신화, 문공사.
- 은지용, 1999, 반성적 사고력 함양을 위한 사회과 통합교육과정 모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명희, 2003, “통합사회과의 새로운 가능성 탐색,” 교원교육, 19(1), 한국 교원대학교, 82.
- 이영효, 2000, “사회과 통합문제와 역사, 지리, 일반사회의 관계,” 「사회과 교육의

문제와 내용 범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사회과교육과정 기초연구 전문가 초청세미나 자료집 ORM 2000-8.

이진석 외 11명, 2003, 중학교 사회 1, 지학사.

이진석, 1997, “사회과 통합교육과정의 국내외 동향에 관한 연구,” 사회와 교육, 25, 327-346.

이혁규, 1996, 중학교 사회과 교실 수업에 대한 일상생활 기술적 사례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형철, 2005, 제 7차 교육과정 중등 사회과 교과서 분석을 통한 통합의 실제,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스티븐 비스티, 2006, 이집트, 계림북스쿨.

장 베르쿠테, 1995, 잊혀진 이집트를 찾아서, 시공사.

장석훈, 2003,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 아이세움.

조성욱, 2004, “중등 사회과 교육과정의 분리적 통합,”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2(2), 291-292.

조애너 콜, 2007, 프리즐 선생님의 신기한 역사 여행, 비룡소.

조이스 타일드슬레이, 2007, 피라미드, 휘슬러.

조화룡 외 12명, 2003, 중학교 사회 1, 금성출판사.

조현아, 2002, 중학교 사회과 통합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조지 하트, 1995, 이집트 신화, 범우사.

차경수 외 11명, 2003, 중학교 사회 1, 교학사.

차경수, 1998, 사회과 통합교육과정의 문제점과 해결대안, 사회과학교육, 2, 71-96.

차조일, 1998, “사회과 통합교육과정모형에 관한 연구 : 기존 논의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이론적 기반의 탐색,” 시민교육연구, 27.

천준호, 2002, 사회과 교육과정 통합에 대한 교사의 호응도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현섭 외 14명, 2003, 중학교 사회 1, 고려출판사.
- 클로드 엘프트, 2003, 이집트 신화, 청솔.
- 타임라이프북스, 2004, 나일 강의 사람들 : 고대 이집트, 가람기획.
- 테리 디어리 · 피터 헤플화이트, 2007, 이왕이면 이집트, 주니어 김영사.
- 파스칼 에스테움, 2003, 이집트, 계림북스.
- 프랑수아 트라사르, 2005, 파라오 시대 이집트 인의 일상, 북폴리오.
- 필리프 라마르크, 2003, 어린이를 위한 세계사 이야기, 보물섬.
- 필립 스틸, 1997, 피라미드는 왜 뺏겨졌을까요?, 다섯수레.
- _____, 2004, 고대 이집트의 비밀 미라, 시공 주니어.
- 하워드 카터, 2007,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청솔.
- 황재기 외 10명, 2003, 중학교 사회 1, 교학사.
- Grace Ciavarella · Angelo Calandra, 2000, *SOSE 1(Studies of Society & Environment), Second Edition*, John Wiley & Sons : Sydney

<Abstract>

Integrated Teaching Model for a Middle School

-a case study of ancient Egyptian civilization in ‘social subject 1’-*

Song, mi-hwa

Geography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Advisor Son myung-chul

In the transition of a national educational curriculum, the social subject in the middle school has been revised from subdivision to integration since 1980. Although the revision is to integrate social subjects, the subjects such as geography, history and general social subjects are not closely connected. The subjects are just arranged in separate units. When looking into the composition of learning contents in detail, the integration even for its advantage needs improvements in practical manner. By teaching students with such incomplete textbook, the curriculum leads to hampering the efficiency of social subjects learning.

This study reviews the subjects of the 7th curriculums and the textbooks for social studies critically, and attempts to suggest an integrated social studies units, Egyptian civilization as an exmple gearing effective learning in classroom teaching.

The process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10 different kinds of the first graders’ textbooks for the middle schools are compared and analyzed. Second, unified curriculums are considered with the concepts, necessity and patterns of contents. The actual conditions and problems are discussed in the integration on the curriculum and text book. Third, the contents are reconstructed that can be unified at the level of teaching and learning by avoiding the formal unity in the current curriculum. In such, an integrated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of 2007.

teaching model was made on Egyptian civilization seeking the possibility of its unification. Finally, I analyzed the possibility of the integration and the effect of studying with the unified teaching model from the questionnaire of my fellow teachers.

Lesson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Integration can provide efficient teaching and thus its necessity.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is integrated curriculum is teachers' ability to reconstruct the textbooks. It's very difficult for a teacher who majored in each specific section to gather and organize information. Teachers need to cooperate on the basis of their specialized principles.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have group work exchanging useful information in school subjects or teachers council. As this study used graphic materials for the integration focused on the interrogatory method of teaching at the teaching and learning levels, it is necessary to use a wide range of teaching methods like role-playing, group studying as well as answers and questions method, and various teaching materials to encourage students to have interests and take part in their classes. The units of social subjects which need or should to be integrated should be integrated in their contents. But other units if not easy to be integrated or ineffective in integration would be taught in separate as branches of social subjects.



부록 1.

♀ 이집트의 고지도 ♀



그림 자료 1. 출처 : 프랑수아 트라사르, 2005, 파라오시대 이집트인의 일상, 북폴리오, 186.

부록 2.

♀ 농경이 가능한 지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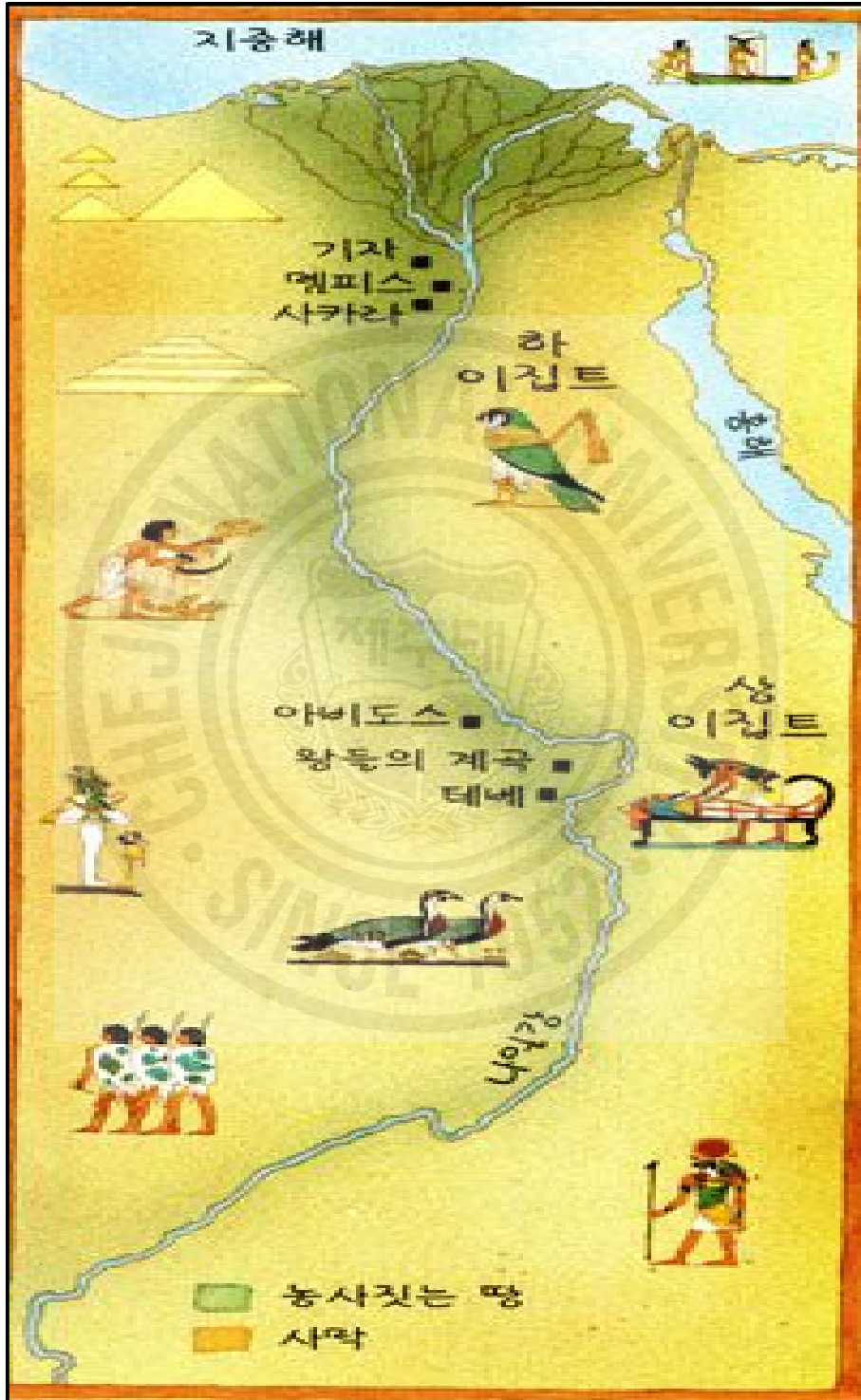


그림 자료 2. 출처 : 필립 스틸, 1997, 피라미드는 왜 뵈죽할까요?, 다섯 수레, 5.

♀ 범람주기와 농사 ♀



그림 자료 3. 출처 : 조화룡 외 12인, 2003, 금성출판사, 사회1, 266.

♀ 이집트인의 가옥의 구조 ♀

고대 이집트인들은 홍수가 나도 물이 차지 않는 높은 곳에다 집을 지었다. 집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과 먼지를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웠다. 비가 거의 오지 않는 나라에서 지붕을 기울어지게 만들 이유는 없었기에 지붕은 평평하다. 진흙만 있으면 집을 지을 수 있었다. 나일강의 진흙은 사방에 얼마든지 널려 있었다. 진흙에다 지푸라기를 섞어서 틀 속에 집어넣은 다음 햇볕에 말리면 벽돌이 된다. 지붕을 떠 받치는 들보(건물의, 칸과 칸 사이의 두 기둥 위를 건너지른 나무)들은 나무를 이용해 만드는데, 이 나무는 파피루스(갈대) 껍질로 둘러싸여 있다. 그리고 다시 진흙을 바른단. 집들은 햇볕을 반사하기 위해 흰색이 칠해지며, 햇살과 먼지가 들어오는 것을 줄이기 위해 창문은 모두 작게 만들고 집안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만든다. 또한 고대 이집트인들은 건축 재료로서 풀, 나뭇잎, 나무 줄기와 가지, 늪에서 나는 갈대, 돌, 암석 그리고 동물의 가죽 등을 이용하였다.

가옥 유형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아주 달랐다. 가난한 사람들의 가옥은 작고, 대개 하나 혹은 두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곳에서 벽돌로 만든 솥을 이용해 음식을 준비하기도 했다. 가구라고는 진흙벽돌로 만든 의자와 등받이 없는 의자 몇 개, 도자기 항아리, 골풀로 짠 바구니 정도 밖에 없었다. 돛자리는 어느 집이나 있었다. 돛자리는 식탁인 동시에 침대였다. 게다가 돛자리는 가장자리가 위로 휘고 보죽해서 전갈과 같은 위험한 벌레의 침입을 막아주었다.

부자들은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큰 빌라에서 살았다. 빌라는 대문이 하나 있는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들은 때때로 이층정도의 높이를 가지는데, 부엌, 하인들의 거처, 예배소, 창고, 욕실, 화장실, 침실, 그리고 안주인을 위한 특별한 거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자들의 집은 밝게 빛나는 천연색 지붕과 타일이 깔린 바닥 등으로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데, 천정과 바닥에는 물고기와 강에 사는 생물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담에는 자연 경치를 나타내는 그림을 그렸다. 가구들도 밝게 빛나는데, 호사스런 침대, 테이블, 의자, 발판과 궤 등이 있다. 가구에는 종종 여러 가지 동물 모양이 새겨져 있다. 안락함과 좀더 멋진 장식을 위해 쿠션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아마로 짠 카페트도 빼놓을 수 없다.

연꽃이 가득 피고 물고기가 득실거리는 연못은 부유한 집의 중요한 특징이다. 연못 주위에는 그늘을 만들기 위해 무화과 나무, 대추 야자와 아카시아 나무 등을 심는다. 또한 이집트인들은 그들의 정원을 좀더 매력 있고 화려하게 꾸미기 위해 석류 나무와 포도 나무, 그리고 양귀비 등을 심기도 한다.



부록 5.

♀ 이집트 신분 피라미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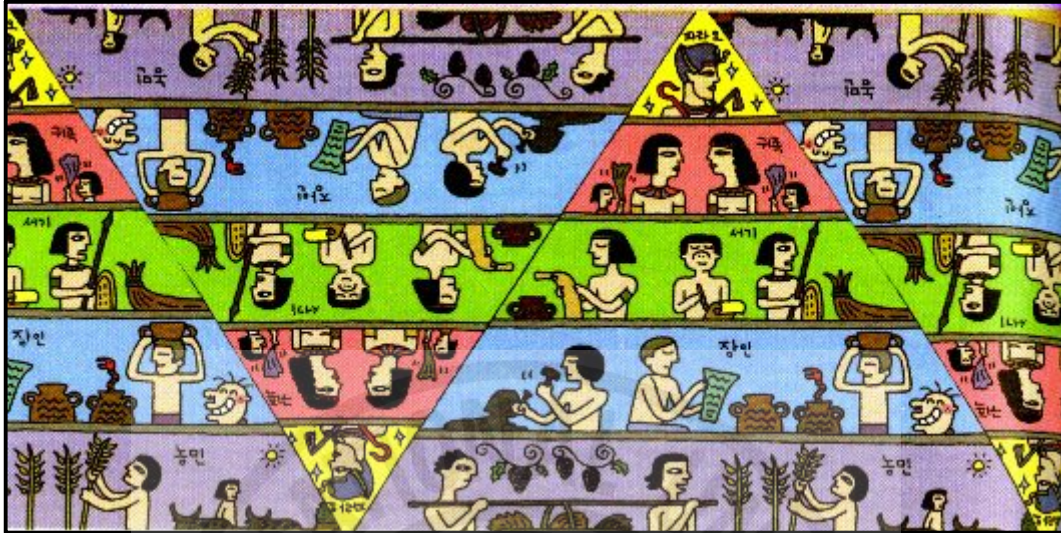


그림 자료 4. 출처 : 강영숙 · 한희정, 노빈슨, 2007, 피라미드의 비밀을 풀어라, 뜨인돌, 134.

부록 6.

♀ 피라미드 ♀



그림 자료 5. 출처 : <http://ko.wikipedia.org>

부록 7.

♀ �핑크스 ♀



그림 자료 6. 출처 : <http://hwojooong.hihome.com>.

부록 8.

♀ 로제타 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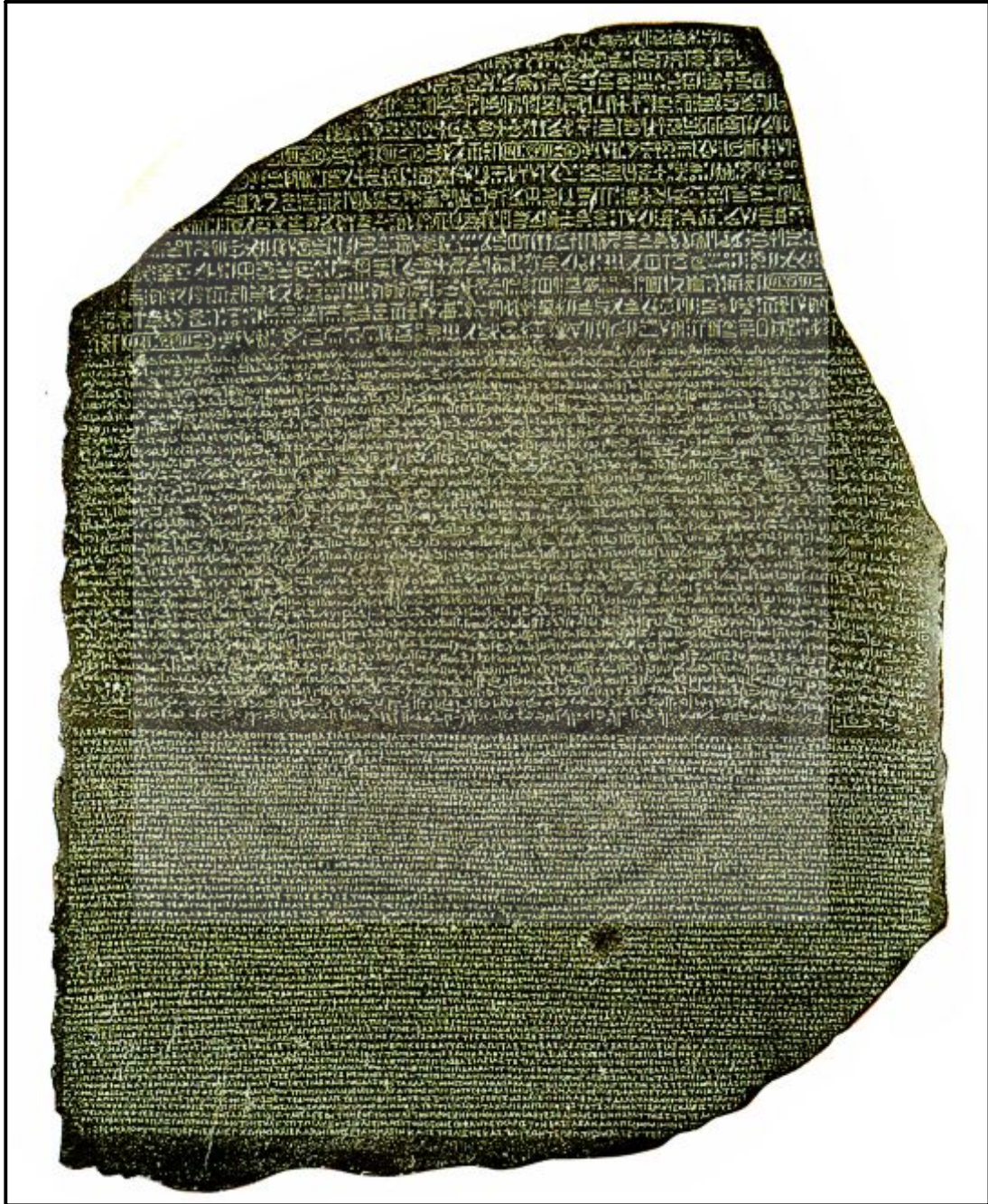


그림 자료 7. 출처 : 필리프 라마르크, 2003, 어린이를 위한 세계사 이야기, 고대 이집트, 박물관, 11.

부록 9.

♀ 이집트 문자 ♀



그림 자료 8. 출처 : 최현섭 외 14인, 2003, 중학교 사회 1, 고려출판사, 229.

부록 10.

✂ 마분지로 피라미드 만들기 ✂

준비물 : 마분지 여러 장, 자, 연필, 각도기 컴퍼스, 가위, 테이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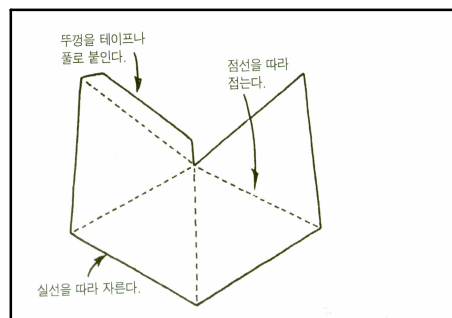
1. 먼저 마분지에 두 변의 길이가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을 그려야 한다. 일단 피라미드의 크기를 결정한 후, 마분지에 삼각형의 밑변이 될 가로선을 긋는다. 밑변의 중점을 표시한 뒤 각도기로 중점에서 90°가 되는 지점을 재어 표시를 해둔다.

그리고 컴퍼스를 이용해 밑변의 양 끝점에 삼각형의 꼭지점이 될 부근에 차례로 원을 그리듯 선을 그으면 두 선이 만나는 점이 생기는 데, 이것이 삼각형의 꼭지점이다. 그 다음에 꼭지점과 밑변의 중점을 잇는 세로선을 긋고, 밑변의 양 끝과 꼭지점을 잇는 대각선도 두 대 긋는다. 드디어 이등변 삼각형이 완성되었다.



출처 : 조이스 타일드슬레이, 2007, 피라미드, 휘슬러, 58-59.

2. 완성된 이등변 삼각형을 가위로 잘라 낸다. 이것을 모형으로 이등변 삼각형을 세 개 더 만든다.
3. 테이프로 네 개의 이등변 삼각형의 등변끼리 나란히 이어 붙여 밑면이 정사각형인 피라미드를 만든다. 이것을 평평한 바닥에 세우면 마분지 피라미드가 완성된다.
4. 또 다른 방법
 - 마분지로 피라미드를 만든다. 우선 피라미드의 옆면을 이루는 4개의 삼각형을 만드는 데, 삼각형의 밑변은 15.7cm, 옆면은 14.94cm가 되게 자른다.(피라미드의 밑면은 필요 없다).



출처 : 테리 디어리 · 피터 헤플화이트, 2007, 이왕이면 이집트, 주니어 김영사. 38.

부록 11.

♀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 ♀



그림 자료 9. 출처 : 유영소, 2003, 이집트 신화, 문공사, 139.

부록 12.

♀ 사자의 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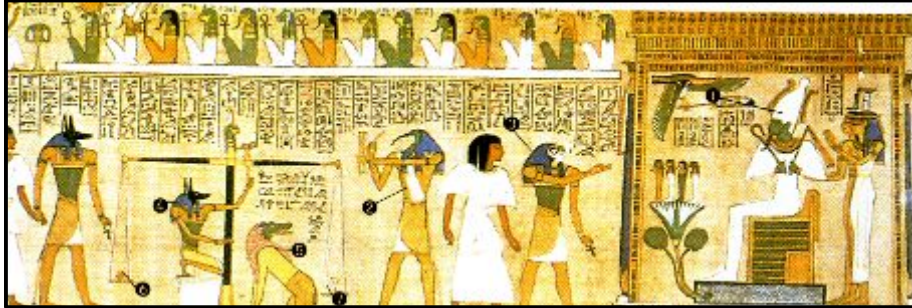


그림 자료 10. 출처 : 이진석 외11명, 2003, 중학교 사회 1, 지학사, 253.

부록 13.

♀ 이집트의 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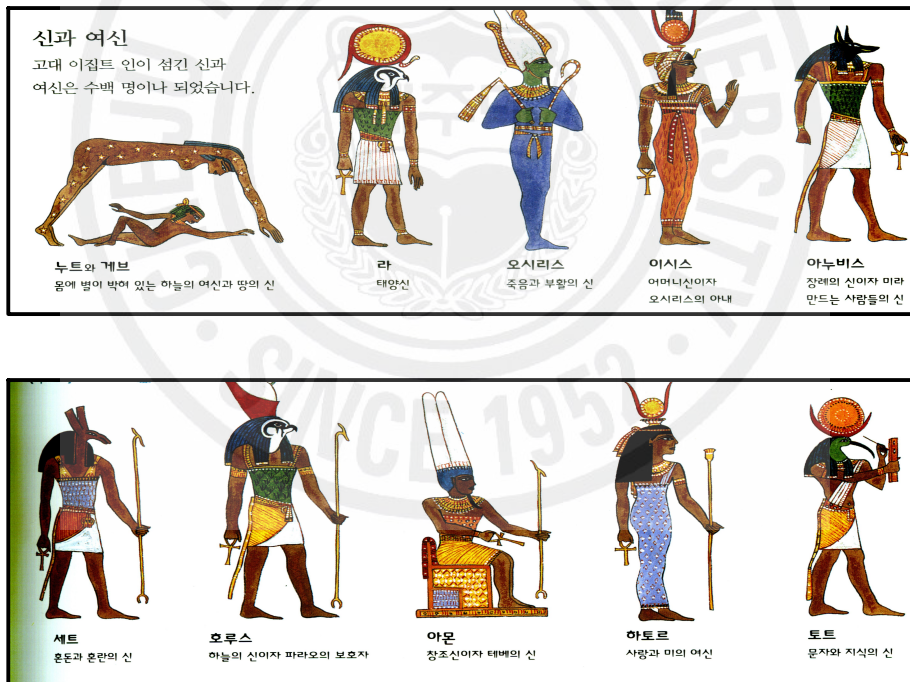


그림 자료 11. 필립 스틸, 2004, 고대 이집트의 비밀 미라, 시공 주니어.

부록 14.

♀ 미라 만드는 과정에 관한 카드 놀이 소개 ♀



출처 : 데이비드 스튜어트, 2004, 너도 한번 이집트의 미라가 되어볼래?, 인디아어.

카드는 20개로 구성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지면 관계상 6개만 제시하였다.

- 게임 1 : - 카드를 나누어 갖는다.
 - 자기의 카드 중 1장씩을 꺼내어 숫자로 대결을 합니다. 이때 한번 사용 한 카드는 다시 사용할 수 없다.
 - 많이 이긴 사람이 승리합니다.
 - 이긴 사람은 미라가 되어 영원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 게임 2 : - 카드를 나누어 갖습니다.
 - 카드에 그려진 주사위로 대결합니다.
- 게임 3 : 미라 과정에 맞추어 미라가 완성되어가는 순서대로 카드를 맞추세요

부록 15.

◆ 이집트 단원의 통합형 수업 모형에 관한 설문지 ◆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제주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생님께 사회과 교육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사회 교과서 특히 이집트 단원을 대상으로 통합형 수업 모형을 만들어 이를 현장 수업에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와 문제점에 대해 선생님의 고견을 들으려 합니다. 수집된 자료는 본 연구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성심 성의껏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7년 5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지리교육전공 석사과정 송미화 드림

★ 참고 사항 ★

1. 소속 학교 : 시(군)소재 중학교(고등학교)
2. 성별 : 남, 여
3. 교육경력 : 년
4. 출신 학교 : 사범대, 비사범대, 기타()
5. 전공 교과 : 지리, 역사, 일반 사회, 윤리, 도덕, 기타()
6. 현재 맡으신 학년 : 학년

<답하시는 요령>

1. 각 문항에 대하여 선생님께 직접 해당되거나 평소 생각하시고 있는 바대로 문항별 답지에 v표 하여 주십시오
2. 자유 응답란에는 선생님의 의견을 간략하게 적어 주십시오.

1. 선생님께서는 현행 중등 사회과 통합 교육(지리, 역사, 일반사회 영역의 통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전적으로 찬성한다 ② 대체로 찬성한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대체로 반대한다 ⑤ 전적으로 반대한다

2. 사회과 통합을 찬성하신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사회과에 대한 지식이 연관되어 통합성을 기할 수 있다.
- ② 교사가 사회과에 관한 폭넓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 ③ 영역별 학년 구분이 없어져 담임 배정에 융통성이 있다.
- ④ 중학교에서 전문 영역별(지리, 역사, 일반사회)구분은 무리가 있다.
- ⑤ 사회과의 전체적인 교수·학습량이 줄어든다.
- ⑥ 기타:

3. 사회과의 통합을 반대하신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전공 이외의 과목은 교과 내용을 정확히 몰라 수업하기 힘들다.
- ② 통합이 학생들의 지적 발달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 ③ 지리, 역사, 일반사회 각 영역의 교수·학습의 질이 저하된다.
- ④ 학과목 고유의 학문적 성격이 없어진다.
- ⑤ 교사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고 실시되고 있다.
- ⑥ 기타:

4.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에 의한 현행 중학교 1학년 사회 교과서에 대하여 영역간 통합의 측면에서 볼 때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 ① 대단히 불만족스럽다 ② 불만족스럽다 ③ 보통이다
- ④ 만족스럽다 ⑤ 대단히 만족스럽다 ⑥ 잘 모르겠다.

5. 제7차 중학교 1학년 사회 교과서에 소개된 이집트 관련 내용은 통합의 측면에서 볼 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3개 영역이 형식과 내용 면에서 완전히 통합되었다.
- ② 형식만 통합되고 내용은 각 영역별로 분리되어 있다.
- ③ 형식과 내용 양 측면 모두 통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④ 처음부터 통합을 지향한 것이 아니다.
- ⑤ 잘 모르겠다.
- ⑥ 기타:

6. 본 연구자가 작성한 이집트 학습지도안은 어느 정도 통합이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 ① 완전히 통합되어 있다 ② 교과서보다는 통합의 정도가 높아졌다 ③ 보통이다
- ④ 실질적으로 내용은 별로 통합되어 있지 않다 ⑤ 전혀 통합되어 있지 않다
- ⑥ 잘 모르겠다

7. 본 연구자가 작성한 이집트 학습지도안으로 수업하면 학생들의 통합적 사고력 함양과 문제해결 능력의 신장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 ① 효과가 클 것이다 ② 효과가 다소 있을 것이다 ③ 그저 그렇다
- ④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다 ⑤ 효과가 전혀 없을 것이다 ⑥ 기타:

8. 이집트 학습지도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간단히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 이집트 학습지도안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간단히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의 글

대학교 교정을 다시 거닐고 싶다는 막연한 소녀적 취향으로 대학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사소하였으나 마지막 학기를 남기고서는 논문으로 인한 많은 번민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논문 준비는 미흡하고 포기할까하는 약한 마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자료를 주시면서 방향을 잡아주시고 마지막까지 격려와 조언을 해주신 손명철 교수님께 먼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집트에 관한 통합형 수업 모형을 연구하면서 대단한 흥미로움을 느꼈습니다. 이집트 신들이나 사자의 서의 의미, 미라 만드는 과정 등 그동안 알지 못했던 많은 부분을 자세히 알게되면서 재미를 느꼈고 ‘그동안 내가 1학년 사회를 특히 이집트 문명을 설명하면서 사실적인 지식의 나열에 그쳤구나’ 라는 부족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논문을 기회로 다음에 1학년을 맡게 되면 학생들이 이집트 문명에 대해 흥미를 갖도록 가르쳐야겠습니다.

그리고 영문 초록을 도와주신 권상철 교수님, 논문을 보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신 김태호 교수님, 오상학 교수님, 대학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 송성대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설문 조사에 응답해주신 여러 선생님과 편집을 도와주신 송경희 선생님, 고성원 선생님, 원광식 조교 선생님의 도움이 있었기에 논문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2년 반 동안 같이 대학원을 다니면서 함께 졸업을 하자며 자주 전화를 하면서 관심을 기울여준 김란영 선생님과 같은 학교에 근무하면서 대학원 가는 길에 길동무가 되어주었던 이영임 선생님, 걱정을 해준 임미정 선생님, 박정미 선생님, 김범훈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같은 교무실에서 바쁜 와중에도 배려를 아끼지 않은 3학년 담임 선생님들과 가족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